25일 Market Index
코스피 4697.51 (-308.52)
코스닥 650.64 (-15.24)
금리(국고채 3년) 3.583 (-0.057)
환율(원-달러) 1343.2 (+0.8)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6일 목요일

하나금융그룹

'메모리 쇼크' 샤오미, 실적 악화
업계, 칩 탑재 줄이고 가격 인상

3분기 샤오미 매출 5%↓21.6조
당기순이익 68%급감한 7800억
삼성전자, 매출 늘었지만 적자 전환
프리미엄 확대·비용 효율화 나서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샤오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과 설계 변경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 업체들은 고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을 방어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차량과 로봇의 메모리 탑재량을 축소했으며 부품업체들은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메모리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샤오미가 전날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072억4000만위안(약 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8억8000만위안(약 7800억원)으로 68.4% 급감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과 함께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스마트폰 수익성 악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샤오미는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형 스마트폰 출하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30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1% 감소했다. 반면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판매가격(ASP)은 39.8% 오른 1486위안(약 3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루웨이빙 샤오미 총재는 이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측면에서 큰 폭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으며 가격대별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위축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54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3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도 수익성이 악화했다. 올해 3분기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 매출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으나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구매·개발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26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SK에코플랜트 '드파인 광안' 아파트. '그랜드 힐 가든' 수경시설과 조형물. /성채리 기자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전국 입주아파트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건축가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 시 상 식 : 12월17일





中 유인 우주선 발사

25일(현지 시간) 중국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선저우 24호 유인 우주선 임무 환송식이 열려 파키스탄의 무함마드 지샨 알리, 중국의 우이와 탕훙보 우주비행사가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 왼쪽). 선저우 24호 유인 우주선이 창정 2F 로켓에 실려 우주정거장 '톈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AP·뉴시스

젠슨 황 '1일 천하'… 천조전자 반납

〈삼성전자 시총 1000조〉

코스피 6.16% 하락한 4697.51 마감
하루만에 시가총액 200조 날아가
삼전 9.87%, 하이닉스 11.05%↓
日·中 등 국제 증시, 엔비디아도 하락

-6.16%(코스피), -9.87%(삼성전자), -11.05%(SK하이닉스), 25일 코스피 지수는 말 그대로 "식겁했다"였다. 코스피는 전날 급등을 뒤로하고 대형 반도체주 급락에 무너져 내리며, 4700선 밑으로 주저 앉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기대서 성장하고 주가가 오른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6.16% 폭락한 4697.51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약 260조원 줄었다. 국내 증시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9.87% 떨어진 17만700원, 11.05% 떨어진 103만원에 장을 종료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17만원까지 밀렸으며, 시가총액도 1000조원을 밑돌게 됐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9000억원을 순매도했다.

AI 황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의 귀환 하루 만에 글로벌 증시도 녹아 내렸다. 이날 일본 니케이225가 2.78% 하락했고, 중국 상해종합,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1% 폭등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5.86%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 나스닥 지수는 1.48%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88% 하락했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GS그룹, 허서홍·이태형 사장 승진

40명 규모 정기 임원인사
대표이사 4명, 부사장 6명 승진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



이태형 ㈜GS 대표이사 사장

GS그룹이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태형 ㈜GS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40명 규모의 2027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사업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경영진을 중용하면서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체제는 그대로 이어가, 경영 안정 속에서 사업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GS는 사장 승진 2명, 대표이사 선임 4명, 부사장 승진 6명, 전무 승진 4명, 상무 신규 선임 24명 등의 2027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계열사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로 사장에 오른 허서홍·이태형 사장은 모두 1970년대생으로, 각각 유통과 재무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인 허서홍 사장은 2025년 GS리테일 대표이사에 오른 뒤 고객 가치 차별화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AI 전환(AX) 기반의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했다. 이 같은 체질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가 둔화됐던 주력사업의 실적도 살아났다. 올해 3분기에는 편의점·슈퍼마켓·홈쇼핑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GS리테일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 사장은 앞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이고 AX 기반 경영 혁신을 중장기 성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태형 사장은 ㈜GS 재무팀장(CFO) 겸 PM(Portfolio Management)팀장으로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는 유임됐다. 지난해 9개 계열사 대표를 교체한 데 이어 올해는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존 경영진이 추진해 온 혁신 과제를 이어가도록 했다. 다만 에너지·발전 자회사 4곳에는 새 대표를 내정했다. 인천종합에너지에는 김진학 GS에너지 사업전략·해외투자실장, GS구미열병합발전에는 이종진 GS E&R 구매실장, GS동해전력과 GS반월열병합발전에는 각각 허창익 경영관리부문장과 여승섭 발전부문장이 이름을 올렸다.

/원관희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배당
▲찬반 빠진 원전 공론화…내달 시민 숙의토론, '중립성' 시험대 /사진 뉴시스
▲'한동훈 징계' 폭로전 점입가경…"10억 요구" vs "張 요청 선거기획단 업무비"
▲임용시험도 'AI커닝' 차단…적발시 응시자격 '5년' 정지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노재헌 주중대사에 소환 통보
▲굿네이버스 "기후·환경 기준에 아동 특성 반영돼야" 국회에 촉구

과천시, 1800억대 산업용지 매각 토지대금 조기 납부 기업에 가점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선정 평가 기준에 재정확보 목적 반영
구체적인 배점은 30일 공개 예정

경기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1800억원대 산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토지대금을 빨리 납부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계획뿐 아니라 토지대금 납부 시기를 평가에 반영해 시 재정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13·14블록 분양공고를 내고 입주기업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토지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기업에 평가상 이점을 주는 방안도 공급지침에 반영했다.

공급 대상은 지식13블록 9835.1㎡와 지식14블록 1만312.5㎡ 등 총 2만147.6㎡(6094평)다. 두 필지의 감정평가액은 총 1844억원 규모로, 3.3㎡당 3000만원 안팎이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에 용지 공급 업무를 위탁했다.

이번 평가 기준에는 과천시의 재정 확보 목적이 반영됐다. 통상 토지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납부하는데, 대금 납부 시기를 앞당기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대금을 빨리 내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빨리 내면 낼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기업의 자금력과 함께 기술력, 기업 규모,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블록별로 한 곳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과천시 입주기업 현황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펄어비스, 메가존클라우드, 가비아, 광동제약, JW중외제약, 비상교육 등 IT·제약·교육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지식9블록에는 넷마블과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분양공고 이후 기업들이 참여의향서와 사업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조기 납부에 따른 구체적인 배점과 세부 평가 기준은 오는 30일 분양공고 때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5일 서울 마곡 아워홈 식품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아워홈 현장 점검

〈한화그룹〉

김동선 한화M&S 사장 동행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도약 강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그룹에 편입된 아워홈 사업장을 처음 방문해 식품 사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아워홈의 성장세를 격려하는 한편 한화그룹의 사업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25일 서울 마곡 아워홈 식품연구센터를 찾아 식품안전실험실과 플레이버실험실, 가정간편식(HMR)실험실 등을 둘러보고 제품 개발 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선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도 동행했다.

김 회장은 중금속과 항생물질, 식중독균 검사 과정을 지켜보며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별화된 맛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조·물류 현장의 안전 투자와 개선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한 끼는 누군가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든든한 힘이자 고단한 일상 끝에 마주하는 따뜻한 위로"라며 "세상의 식문화를 창조하고 이끄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이 되자"고 독려했다.

김 회장은 아워홈의 성장 성과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그룹 편입 이후 이뤄낸 역대 최대 실적은 함께 만들어낸 첫 번째 큰 성과"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아워홈은 올해 상반기 매출 1조4000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26% 증가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구내식당에서 2030세대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대에 선 김 회장은 직원들의 현장 이야기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회장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직한 울타리 안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양성운 기자 ysw@

9월까지 출생아 21.9만명… 전년比 14.3% ↑

데이터처, 증가율 역대 최고 기록

올해 들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1~9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7000여 명 늘었다. 전년대비 14.3% 증가했는데, 이는 45년 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21만8896명이 태어났다. 지난해 동기(19만1593명)보다 2만7303명(14.3%) 늘어나며, 해당 통계 작성이 처음 시행된 1981년 이래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출생아는 최근 2년간 증가해 온 혼인, 30대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9명 증가한 0.90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 2018년(0.96명) 이후 처음 0.9명대에 올라섰다.

이에,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0.9명대에 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했다.

3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25~29세가 1.1명, 30~34세가 8.2명, 35~39세가 8.7명 늘었다. 40세 이상도 0.3명 늘었다.

첫째아 비중은 커지고 있다. 3분기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살펴보면 첫째아가 63.5%로, 작년보다 1.3%포인트(p) 높아졌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7%p, 0.6%p 하락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41년으로 0.02년 줄었다. 결혼 후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감소한 것. 다만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6299건으로 작년보다 2156건(11.7%) 감소했다. 8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3분기 혼인 건수도 5만7799건으로 0.8% 감소했다. 분기별 혼인건수는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9월 이혼 건수는 7476건으로 6.0% 감소했다. 3분기 이혼 건수는 2만2750건으로 1.0% 줄었다. 일반이혼율은 남자가 4.0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여자는 3.9건으로 0.1건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TSMC, 美 텍사스 투자 가시화… 삼성전자, 선제 양산 승부수

TSMC, 226억달러 규모 투자 추진
2나노 이하 첨단공정 생산시설 구축

삼성전자, 경쟁사 공급난에 수주 기회
올해 2나노 수주 과제 2배 증가 전망
테일러 공장 내년 상반기 양산 관측
테슬라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 예정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미국 텍사스주 투자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양산을 앞둔 만큼 미국 내 첨단공정 수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TSMC 미국 법인이 텍사스주 브래조스 카운티에 226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주정부에 세제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TSMC는 1295만㎡ 이상의 부지에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을 적용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HPC),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웨이저자 TSMC 회장이 텍사스 현지 생산시설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적용 공정이 공개된 것이다. 세제 지원 신청서상 건설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다만 재산세 감면 여부에 따라 투자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생산거점인 애리조나주도 후보지로 남아 있다.

TSMC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40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예산도 승인했다. 첨단 공정과 패키징 생산능력 확대를 비롯해 신규 공장 건설 및 연구개발(R&D)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에 각각 최대 5억달러를 투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TSMC가 72.5%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5.9%로 2위를 유지했지만 양사의 점유율 격차는 1분기 65.8%포인트에서 2분기 66.6%포인트로 확대됐다.

다만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 공정 공급 부족이 삼성전자에 신규 고객사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SMC의 5·4나노와 3나노 공정 생산능력이 2분기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공개한 분기보고서에서 경쟁사의 공급난과 가격 인상이 선단공정 시장에서 신규 진입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나노 AI·HPC용 대형 고객사 과제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나노 공정 수주 과제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경영진 인사를 통해서도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힘을 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7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고 파운드리 등 미래사업 강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미국 내 첨단공정 생산거점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주요 장비를 반입하고 생산라인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12월 중·하순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한다.

해당 공장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AI6'가 생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5년 7월 테슬라와 165억 4400만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까지다. 테일러 2공장도 2나노 공정을 적용해 2030년 양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위탁생산부터 신약 개발까지" K-바이오, 中 전략적 동맹 확대

中 지방정부·현지 기업과 투자 협약
위탁생산부터 신약 개발까지 협업
공급망 리스크에 선별적 접근 필요

미·중 공급망 재편과 생물보안 규제 압박 속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임상 인프라와 한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및 품질 역량을 결합하는 '아시아형 분업 모델'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협회 회관에서 중국 안후이성 톈창시 인민정부(시장 칸쉬루이)와 한·중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무역·기술 교류를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정책·투자환경 정보 교환 ▲공동 연구개발(R&D)·원료 공급·위탁생산(CMO) 연계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톈창시는 의수협이 추천한 한국 기업에 투자 상담부터 현지 방문, 행정절차 대행까지 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산제약·케비젠·파마라인 등 국내 3개 기업도 톈창시 상무국 및 현지 기업과 각각 협력 문서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방한 일정을 총괄한 다산제약은 2023년 중국 허이약업과 설립한 합자법인 '안휘 허이다산 의약유한회사'를 거점으로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가속화한다.

세포치료제 원료 분야에서도 대형 계약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엑셀세라퓨틱스는 이날 중국 최대 히알루론산 기업 블루메이지와 향후 3년간 총 60억 원 규모의 T세포 및 NK세포 배지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며,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에 따른 투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블루메이지의 하이난 공장을 활용한 현지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I 거품·메모리 공급과잉 우려에 증시 급락

〉〉 1면 '젠슨 황… '서 계속

증시 급락 이유는 투자 수익성 등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후년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미국 정부가 다시금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외신들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의 급락에 대해 젠슨 황 CEO의 복귀에도 AI 투자 거품을 둘러싼 근본적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마이크론에 대해 글로벌 투자 은행인 BNP파리바가 메모리 칩의 공급 과잉 위험을 경고하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주가도 낮추면서 얼어붙은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젠슨 황 CEO에 대한 미국 상원의 청문회와 당국의 회계 조사 등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韓, 메모리 쏠림에 '휘청'… 대만은 AI 공급망·배당으로 방어

코스피, 전고점 대비 48.46% 조정
대만 가권지수, 하락폭 23.4% 그쳐
TSMC 등 공급망 주요 분야 선두권
상장사 고배당, 배당수익률 영향도

外人 올해 코스피 시총 5.4% 순매도
대만서도 사상최대… 2.5% 안팎



코스피가 6.16% 급락해 정규장을 마감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주요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은 15.24포인트(2.29%) 내린 650.64에, 원·달러 환율은 0.8원 오른 1343.2원 마감했다. /뉴시스

"지난 3월 저점에서 6월 고점까지 불과 몇 달 사이 나타난 (한국)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세와 이후 급락이 전형적인 거품의 마지막 단계와 닮았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버블 공포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9000선을 넘어섰던 한국 코스피는 25일 고점 대비 48.46% 조정을 받았다. 대만 가권지수도 최근 AI 거품 우려에 내리막길이지만, 고점 대비 하락 폭은 한국 증시의 절반(23.34%)도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는 외신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것일까.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걱정과 기우가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잘나갈 때 다음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한국경제와 증시에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조언한다.

◆ 韓 증시, 반도체 메모리 '외줄'

왜 한국증시에 가혹할까. 시장에서는 두 나라 증시의 낙폭 차이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한국 증시의 높은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꼽힌다. 25일 JP모건은 아시아 AI 전략 분석 보고서에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첨단 로직 반도체와 패키징, 반도체 장비, ABF 기판, 고급 동박적층판(CCL), 고대역폭메모리(HBM), 고속 광통신 부품 등을 꼽았다. 이 중 한국은 메모리와 HBM(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대만은 AI 하드웨어 공급망(TSMC, 미디어텍, 훙하이정밀공업) 주요 분야에서 선두권에 위치했다. 선단 공정·패키징 모두에서 독보적 지위를 구축한 TSMC는 그래픽처리장치(GPU)뿐 아니라 주문형반도체(ASIC)와 중앙처리장치(CPU) 수요도 흡수하고 있고, 후공정 대표 기업 ASE 역시 올해 고속 성장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차이는 이익 전망의 불확실성에서도 드러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2028년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변동계수(CV)는 SK하이닉스가 25.3%로 TSMC(10.1%)의 약 2.5배였다. 수치가 클수록 향후 이익 전망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유안타증권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전망을 보면 한국은 2026년 334.3%로 치솟은 뒤 2027년 36.7%, 2028년 4.8%로 빠르게 꺾인다. 대만은 69.5%, 32.3%, 27.8%로 증가세가 길게 이어진다.

종목 쏠림만으로는 낙폭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대만도 TSMC 한 기업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은 AI·반도체라는 공통 변수에 여러 종목이 함께 반응하고 있다. 수급이 쏠리면서 증시 전체가 충격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200 종목 간 주가 움직임의 상관계수는 과거 0.2에서 올해 0.55로 높아졌다.

대만 상장사의 높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도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만의 배당성향은 50% 이상으로, MSCI 신흥국(40%)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20%대 후반인 한국과 대조적이다.

같은 듯 다른 차이를 알아본 이들은 글로벌 큰 손들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2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24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5.4%에 해당한다. 대만증권거래소 집계로 같은 기간 외국인의 대만 증시 순매도액은 3조2884억 대만달러다. 대만에서도 사상 최대지만 시가총액 대비로는 2.5% 안팎이다.

◆ AI버블 우려, 韓 증시 바람 앞 등불 신세

시장에서는 AI 열풍을 타고 치솟았던 기술주들이 잇따라 급락하면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 마이크론 주가는 3개월 만에 약 4배로 뛰었다가 절반 넘게 하락했다. 반도체 업종 전반도 두 배 상승한 뒤 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고점 대비 55.08%, 65.52% 하락했다.

한국증시에서 버블이 터질 것인가.

WSJ는 한국 증시를 대표적인 과열 사례로 지목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AI라는 한쪽 다리로 서 있다"며 "이 다리가 흔들리면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업 간 순환금융 확대를 우려했다. IMF는 AI 순환금융 규모가 1조달러(약 1300조원)를 웃돌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부채로 조달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투자은행 UBS는 엔비디아가 자금 지원을 축소할 경우 시장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하더라도 가격은 먼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2001년 닷컴버블 붕괴 당시를 제시했다. 당시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은 전년보다 18.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출 가격이 51.9% 급락하면서 판매량 증가 효과를 상쇄했다.

지나친 걱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AI·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금융업종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경기침체 혹은 금융위기 징후, 즉 기업 혹은 가계의 부실 위험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업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아직 큰 조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견조한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5000피' 공약선 깨지자 靑 움직인다… "대응 대책 필요"

李 대통령 "주가 널뛰기 같아"
금융위, 단·중·장기 대책 준비
부정여론 1위 '경제·민생' 여파

주가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증시 대응 기조를 '관망'에서 '적극 대응'으로 바꾸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직접 대책을 주문했고, 정부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주가 급락이 가계 자산과 소비를 위축시켜 민생 경제는 물론 국정 지지도까지 흔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안펀드 실제 투입까지는 최장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어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증권시장 변동 추이에 대해 "주가가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도 폭등하고 널뛰기 같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직접 물었다. 금융위는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도 마련돼 있다.

실제로 최근 증시는 '널뛰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최근 50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소식에 반도체주가 반등하며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6.32% 오른 5006.03에 마감해 3거래일 만에 5000선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전날 급등분을 반납하며 6.16% 내린 4697에 마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 대응을 직접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주가지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5000'이라는 수치의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한 후 7개월 만인 올해 1월22일 처음 5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엔 8000선에 이어 9000선까지 내달리며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상징하는 지표가 됐지만, 불과 몇 달만에 공약 달성선을 내준 상황이다.

불과 2주 전인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최근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진 상태로 이어지자 정부는 대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필요하면 즉시 증안펀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했다. 증안펀드 가동 검토가 처음 거론된 지 열흘 만이다.

기조 전환의 배경에는 여론도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경제·민생'이 꼽혔다. 4개월간 1위를 지켜온 '부동산 정책'을 제친 것으로, 증시 하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경제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도 가계가 체감하는 충격은 작지 않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한국 가계의 주식 자본손실을 약 563조원으로 추정했다.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9%, 민간소비지출의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로, 씨티는 이 손실이 내년까지 민간소비와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에 유입된 개인 자금이 많았던 만큼, 하락장의 여파가 가계 경제에 직격타를 날린 셈이다.

결국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슷한 인공지능(AI)발 충격을 받은 대만 당국은 지난 6일 정부 기금인 국안기금 투입을 승인했고, 9일부터 안정화 조치에 들어가 훨씬 빠르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증안펀드 역시 최초 거론 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열흘이 걸렸고, 금융사들이 약정한 자금을 필요할 때 납입하는 방식이라 실제 가동까지는 최장 한 달이 걸릴 수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026년 이재명 버블의 처참한 붕괴'라고 규정하는 등 정부를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순매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무리한 지방선거용 증시부양 주가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버블' 진상규명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글로벌 제조업체 비용 절감 전략, 삼성·SK에 '변수'

›› 1면 ''메모리 쇼크' 샤오미…'서 계속

애플은 지난 6월 맥과 아이패드에 이어 9월 아이폰 가격을 인상했으나 원가 상승분을 일부 상쇄하는 데 그쳤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메모리 가격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메모리 구매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부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재생 D램을 활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의 재생 메모리 채택률이 올해 3~4%에서 내년 7~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자동차와 로봇의 제품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과 AI 기술 고도화로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원가 부담으로 오히려 탑재량을 줄이고 있는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23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 차량용 AI 반도체 'AI4.5'의 메모리 용량을 기존 32기가바이트(GB)에서 24GB로 줄였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탑재할 차세대 AI 반도체의 메모리 용량도 축소했다. 양산에 필요한 물량 확보와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안정적인 메모리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일본 덴소 등은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론과 차량용 메모리 및 저장장치 공급을 위한 전략적 고객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비용 절감 전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에도 변수다.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반면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와 차량용 메모리 탑재량 축소로 범용 D램 수요 증가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제품별 공급 전략 조정이 요구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연금이 고객님께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평생 소중하게 모은 자산
신한이 잘 지키고 키워가겠습니다
연금은 신한
믿음이 信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 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친명은 중징계, 친청은 반발… 최민희 징계 두고 민주당 내홍

친청계 "징계 대상은 김민석" 주장
친명계, 제명 포함 중징계 촉구
내일 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사이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오는 27일 당 윤리심판원 심의가 당내 통합과 분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청계는 당 윤리심판원의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이틀 앞둔 25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심의의 부당함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호소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역구 당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사진·영상 기자들에게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했다가 구설에 올랐고, 지역구 당원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녹취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을 부인하고 유감을 표한 가운데, 김민석 대표는 지난 12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김 대표는 감찰 지시 3일 뒤인 15일에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최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감찰 사흘 만에 윤리심판원에 이첩해 빛의 속도로 심의 날짜를 잡았고 그보다 먼저 접수한 당 대표 징계 청원은 심의를 언제 할 지도 모른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도 여러 건 윤리심판원에 접수돼 있다고 한다. 유독 최 최고위원만 콕 집어서 쫓기듯 징계 심의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친청계는 문제가 된 최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은 본인 스스로 수 차례 사과했고, 반·분·신(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의혹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김 대표가 징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에 앞서 당 대표 징계 심의에 먼저 착수해야 공정과 형평, 민주주의에 맞는 일"이라고 했다.

최 최고위원의 지역구(경기 남양주갑) 일부 당원들은 문제가 된 비공개 당원 간담회 당시 발언 맥락이 담긴 서류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당수 초선 의원과 친명 원외조직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며, 최민희 최고위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내 친명 성향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을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처분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인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 징계받으면 차기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청계 및 친청계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원자격정지 징계의 경우 최고위원직도 내려놔야 하고 차기 총선에서 경선 득표수에서 15% 감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최 최고위원은 올해 2월 딸 축의금 관련 의혹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김 대표 취임 이후 신천지 의혹과 최 최고위원 징계 추진으로 당내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최근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 회동한 결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중국 전기차 공세 속 국산차 지원 '제자리'

내년도 세제개편안서 전기차 빠져
여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법안 발의
재경위는 '통상 이슈' 우려로 난색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국내 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재정소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재정경제부는 국산 전기차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세제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는 국가 경제와 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인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개 산업을 대상으로 실제 국내에서 이뤄진 생산에 연동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 전기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의 거센 추격을 우려하며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된 '하이록스 서울 2026'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BYD의 모습. /BYD

실제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와 BYD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엔 1.1%에 그쳤던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33.9%까지 급증했다. 반면 1~9월 전기차(승용차) 중 국산 비중은 48.7%로 절반을 밑돌았다.

게다가 지난 9월엔 수입 전기차(1만8181대)가 국산차(1만3587대)를 앞질렀다.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BYD는 올해 1~10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록 기준 2만731대를 판매하며 누적 판매량 기준 수입차 브랜드 4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단 평가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배터리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의 부상에 국내 전기차 업계에 위기감이 드리우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1대 당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태홍 기자

김민석, 조희대 탄핵 위한 '5당 연대' 제안

민주당, 진보4당과 공동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신속 추진을 위한 5당 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빛의 혁명을 이뤄왔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저지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완전한 내란 청산 결의를 모으고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의 시대적 소명을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도 12·3 국민 주권의 날로 삼아 12·3 내란에 항거한 국민의 뜻을 기리는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그 주역들이 한 데 모여 조희대 사법부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한 5당 연대를 필두로 시민사회와 연대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진보4당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인 탄핵 소추 시기 등을 놓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각 정당들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주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李 "공공임대, 중산층도 선택하도록"

은평 공적주택 현장 간담회
매년 평균 24만호 공적주택 공급
좁고 외진 임대주택 인식 탈피 의지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5일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 주거 지원 수단에서 중산층도 골라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4만호 규모의 공적주택을 공급해 불안해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공공임대' 대신 '공적주택'이라는 이름을 내건 것도 외진 곳의 좁은 '영세민 주택'이라는 인식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공적주택, 모두의 주거사다리'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은평구의 신축 공적주택 단지를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외진 곳, 좁은 면적, 또는 주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라며 "공공임대주택 하면 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을 저는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매입한 것이든, 아니면 공적 영역에서 제공돼서 임차한 것이든 그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하나의 선택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위치나 면적 또는 품질 측면에서 중산층들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또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선택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는 "요즘은 안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영세민 주택'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선택지로서 누구나 자기를 구입하기 전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적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해 평균 24만호 정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50%가 확대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비중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공급 공백을 재차 짚으며 "사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허가도, 착공도 대폭 줄어들었고, 이게 한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좀 불안정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향해 "최대한 속도를 내서 물량을 확대 공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 주택 공급이 투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새로운 주택 공급이 새로운 주택 투기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은데,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의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집은 원래 행복한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좀 왜곡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주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공공 영역의 주택들이 완충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전매트·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적주택을 최대한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시민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춰, 서울의 매력을 개발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살피면 서울은 더 풍요로워지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 속 삶의 매력을 높여갑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우리 부부의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길
내 일상을 따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주길
우리 가족들이 항상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사는 이 도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도시
매력이 넘치는 서울이 되길
우리 집 장만하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시민이 행복한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

지점 줄이는 은행… 시니어·외국인·자산가 특화점포 재탄생

은행 '점포 전문화' 속도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성 개선
5대 은행, 수도권 시니어 점포 30곳
연금특화 점포 포함땐 100곳 달해
고액자산가 위한' VIP브랜드' 선봬


우리은행이 고액자산가 고객 브랜드 '투체어스' 고객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중장년층 고객 대상 융복합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하나은행

주요 은행이 '점포 전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드는 만큼, 점포 방문이 잦고 수익성도 높은 고객층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 점포 수는 552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의 5534개와 비교해 12개 줄었다. 금융당국이 2023년과 2026년 두차례 은행 점포폐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점포 폐쇄 속도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대체점포 제공이 쉬운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이 수도권 점포를 줄이는 것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금융의 보급으로 젊은 세대의 은행 방문율이 낮아지면서, 점포의 중요성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앞서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에 따르면, 만 20~64세 금융소비자 가운데 '최근 6개월 내에 은행 영업점을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9.1%에 불과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은행 점포 이용률이 급감하는 만큼, 은행들은 점포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포 전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 외국인,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점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에서다.

◆ 고령자 특화 '시니어 특화점포'

'점포 전문화'의 최전선에서는 디지털 금융 보급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특화 점포'가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수도권에서만 30곳 이상의 시니어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이 운영하는 '연금 특화 점포'를 포함하면 100곳에 달하는 고령자 특화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고령자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비대면금융 이용률이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53.8%에 불과하다.

시니어 특화 점포는 고령자 고객에게 알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점포다. 또한 지역 고령자들이 방문해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배치했으며, 큰 글씨와 느린 안내로 조작이 용이한 특화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은행 업무별로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쉽도록 점포 내에 별도의 인력이나 안내판을 배치한 경우도 잦다.

◆ 연금·상속… '자산관리' 수요 대응

은행권은 연금·상속 등 빠르게 늘어나는 자산관리(WM)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장기간 자산을 축적해 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자녀·손주 세대를 위한 상속을 준비하는 고령자들도 늘고 있어서다. 특히 고령자와 자산가는 일반 고객 대비 1인당 예치금이 많고, 고객당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은행권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자산관리 특화매장(PB·WM특화매장)은 약 200곳에 달한다. 지점별로는 연금, 자산관리 등 특화 영역에 차이가 있지만, 기존 은행업무 이외에도 별도의 특화 인력을 통한 연금·자산관리·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5대은행은 수 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예치한 고액 자산가를 위한 'VIP 브랜드'도 런칭해 수익성 확대에 나섰다. VIP브랜드 점포에서는 기존 자산관리 특화 매장에서 제공했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이외에도 부동산·상속·절세 등 개인형 금융상담을 지원한다.

◆ '외국인 특화점포' 급증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와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금융'도 은행권의 새로운 먹거리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취업·유학 등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291만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했다.

'외국인 특화 점포'는 외국어 대응 직원과 외국어 키오스크를 통해 외국인 고객이 자국어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종 외국인 전용 상품도 공급한다. 특히 일부 외국인 특화점포는 평일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도 문을 여는 '무휴일 점포'로 운영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전국에 40개 이상의 외국인 특화점포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 특화점포는 서울 구로·서울 대림·안산·화성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은 물론, 김해·천안·대구 성서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다수 운영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수도권에 5곳의 외국인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서남권에도 3곳의 외국인점포를 운영 중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도합 3곳의 외국인 특화점포를 운영하며, 21개 일반지점에도 별도의 외국인 특화 창구를 설치해 전용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주류가 된 만큼, 경영 효율화를 고려하는 은행이 점포를 줄이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대면 금융 보급으로 여·수신 상품의 금리 경쟁도 본격화한 만큼, 수익성이 높은 특화점포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점포들이 재편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사 52곳, 3분기 누적 순익 10.4조 '7.8% 급감'

외형 성장에도 보험·투자손익 악화
손보사 6.5조로 0.9% 증가 했지만
생보사 19.5% 줄어 손보 상승분 상쇄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험료와 총자산이 늘어나는 등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악화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생보사의 순익이 급감한 반면, 손보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 52개사(생명보험사 22개사·손해보험사 30개사)의 당기순이익은 10조40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23억원(7.8%) 감소했다.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88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21억원(19.5%) 줄었다. 예실차 손실과 손실부담 비용 증가, 금융자산 처분·평가손익 감소 등으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각각 3025억원, 1조4532억원 감소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5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억원(0.9%) 증가했다. 금융자산 처분·평가손익 감소 등으로 투자손익이 1조778억원 줄었으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손익이 1조2682억원 증가했다.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12조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496억원(15.6%) 증가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05조8953억원으로 16조4783억원(18.4%) 늘었다. 저축성보험(34.0%), 보장성보험(10.3%), 퇴직연금 등(35.9%)은 증가했으나 변액보험은 0.5% 감소했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06조1373억원으로 12조1714억원(13.0%) 증가했다. 장기보험(7.7%), 자동차보험(4.2%), 일반보험(8.6%), 퇴직연금 등(51.7%) 모든 부문에서 수입보험료가 늘었다.

외형 성장에도 수익성 지표는 악화됐다. 올해 1~9월 보험회사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01%, 6.98%로 전년 동기 대비 0.15%포인트, 3.28%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395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조8000억원(3.8%) 증가했다. 총부채는 1166조1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0.8%) 감소했으며 총자본은 228조9000억원으로 60조4000억원(35.8%) 늘었다.

금감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보험손익이 악화됐으나 향후 손익 변동성이 축소되고 보험 본업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리와 주가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대내외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투자위험 및 자산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손익과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25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 0.06%p 상승 5% 넘어서

한은,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코픽스 등 단기 지표금리 상승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반영되면서 주담대 금리는 6개월 연속 올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5.02%로 전월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취급액 비중도 커졌다. 금리 구간별 비중을 합산하면 10월에는 40.1%로, 전월 31.6%보다 8.5%p 높아졌다. 연 5% 이상 6% 미만이 31.0%, 6% 이상 7% 미만이 4.1%, 7% 이상이 5.0%였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4.98%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리 유형별로 변동형은 연 4.90%로 0.14%p, 고정형은 연 5.13%로 0.02%p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김주형 기자 gh471@

하나저축은행, 552명 개인정보 유출

'고객확인 재이행 시스템' 해킹 발생
전화번호·주민번호 등 19개 항목

하나저축은행에서 고객 55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마저 해킹 공격을 받은 가운데 유출 정보의 범위도 자택주소와 직장명 등으로 확대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은 지난 16일 모바일 웹 내 '고객확인 재이행 시스템'에 외부 불법적 침입이 발생, 고객 55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추가 피해 여부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항목은 총 19개다. 고객번호, 고객명, 영문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국적코드, 국적명, 직업업종코드, 직업업종명, 자택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주민번호, 상품코드, 직장우편번호, 직장주소, 직업직장명, 이메일 등이다. 단, 고객별로 유출된 정보는 상이하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업계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에서 잇따라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규모는 총 4만6000여 건에 이른다.

유출 사고 빈도뿐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범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유출 범위가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연 소득 등이었다면 이번 하나저축은행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국적과 직업, 직장명과 직장 주소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춘 하나저축은행마저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업계 전반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매년 하나저축은행을 포함한 관계사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룹 공통 플랫폼을 통해 보안 취약점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하나저축은행은 외부 인터넷주소(IP)에 대한 보안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위한 당행의 지원 절차도 마련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

OCI홀딩스, 비중국 폴리실리콘 판매 확대… 실적개선 속도

내년 초 美 신규 고객사 공급
증설물량 두고 추가계약 논의도
최저수입가격제도 수혜 기대감

OCI홀딩스가 미국 시장에서 비중국 폴리실리콘 공급을 늘리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생산 물량의 판매처를 2029년까지 확보한 데다 내년 초부터 미국 신규 고객사향 출하가 시작되고 다음 달 미국의 최저수입가격(MIP) 제도까지 시행되면서 성장세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 오하이오공장.

25일 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내년 1분기부터 우주용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미국 고객사에 폴리실리콘·웨이퍼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맺은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웨이퍼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테라서스가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베트남 자회사 네오실리콘테크놀로지스가 가공해 납품한다. 업계는 이에 따라 OCI테라서스의 내년 폴리실리콘 판매량이 3만톤에 근접해 올해보다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OCI홀딩스는 OCI테라서스의 연간 생산능력 3만5000톤에 대해 2029년까지 판매처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2028~2029년까지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과 베트남 웨이퍼는 완전 솔드아웃(주문 완료) 상태"라고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증설에도 속도가 붙었다. OCI홀딩스는 1조4000억원을 들여 생산능력을 2029년 7만톤으로 두 배 늘리고 증설 물량을 두고도 미국 고객사와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판매 확대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OCI홀딩스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80억원으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고, OCI테라서스는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45% 늘어 20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올해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개선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OCI홀딩스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7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0.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MIP는 가격 측면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수입 폴리실리콘에 kg당 21달러의 하한선이 적용되면 kg당 5달러대인 중국산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비중국산 가격도 kg당 18달러 안팎으로 하한선을 밑도는 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의 도입 원가 역시 21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중국 밖에서 폴리실리콘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OCI홀딩스와 독일 바커, 미국 헴록 정도에 불과해 미국 고객사들의 비중국산 수요도 OCI홀딩스로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 모듈 재고가 60~70GW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MIP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는 재고가 소진되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MIP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반"이라며 "OCI홀딩스는 내년 초부터 물량 증가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당장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비중국 업체가 OCI홀딩스뿐이어서 중장기로도 물량 증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삼성디스플레이
에이엠에스오스람 투자

마이크로 LED 상용화 박차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광반도체 기업 에이엠에스오스람(ams OSRAM)의 최대주주에 올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에 나선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축적한 패널 기술에 초미세 발광소자 제조 역량을 더해 마이크로 LED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5일 에이엠에스오스람의 지분 9.1%를 확보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2억1000만유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이엠에스오스람이 신규 발행하는 주식 998만4439주를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분 취득은 관련 기관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년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사는 지분 투자와 별도로 차세대 마이크로 LED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이엠에스오스람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초미세 LED의 발광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소자의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제조 공정 및 생산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해 온 마이크로 LED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알도 캄퍼 에이엠에스오스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는 양사의 상호보완적인 기술과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투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생산라인… 글로벌 공급거점 역할 '톡톡'

르포
한국GM 보령공장

연간 50만대 이상 자동변속기 생산
비자레알 사장 "시장 경쟁력 기여"


한국GM 보령공장. (왼쪽부터)가공 공정 밸브 바디 가공 장비·알루미늄 고압 사출 장비. /한국GM

지난 23일 찾은 충남 보령 한국GM 보령공장.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풍경 사이로 들어선 공장 안에서는 기계음과 함께 변속기 생산라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이곳은 600명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는 보령 지역 최대 민간 사업장이자 한국GM의 글로벌 생산거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 공급기지다. 이곳에서 생산된 자동변속기는 국내 완성차 생산라인은 물론 남미와 중앙아시아까지 향한다. 지역 일자리와 한국GM의 생산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을 동시에 지탱하는 산업 현장인 셈이다.

메인샵에는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령공장은 소재 생산부터 가공·조립까지 한 사업장에서 수행한다. 알루미늄 부품과 기어를 자체 가공하고 열처리 라인도 갖췄다. 변속기 정밀 가공 공정의 자동화율은 81%다.

케이스·하우징 가공라인은 작업자가 제품을 투입하면 가공과 누설검사, 세척을 거쳐 자동 창고에 보관한다. 이후 조립 순서에 맞춰 부품을 공급해 보관 공간과 물류 인력을 줄인다.

조립라인은 청정도를 관리하는 클린룸 형태다. 서브라인에서 조립한 제품은 머리 위 컨베이어를 통해 메인라인에 공급된다. 주요 품질 데이터는 RF 태그 시스템으로 서버에 저장하며 완성된 변속기는 모두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출고된다.

공정 연계 효과는 핵심 부품인 기어에서 드러난다. 열처리 과정에서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보령공장은 전후 공정을 내부에서 수행해 변형을 확인하고 후속 가공에 반영한다.

보령공장은 1996년 7월 설립돼 이듬해 4단 자동변속기 양산을 시작했다. 2004년 GM 글로벌 사업장에 편입됐고 2007년부터 6단 자동변속기를 생산했다. 지난해 6월 6단 자동변속기 누적 생산 700만 대를 달성했으며 내년 상반기 800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50만 대 이상이다. 협력사는 218곳이며 지난해 생산·부품 조달·물류서비스 관련 연간 구매액은 약 3390억원이다.

이날 보령공장을 방문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의 경쟁력이 직원들,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보령공장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변속기를 통해 한국GM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삼성물산 상사부문
이재혁 부사장 선임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부사장 1명, 상무 3명 등 총 4명을 승진시키는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혁 신임 부사장(사진)과 노영식·이진수·조팽연 신임 상무가 발탁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성과주의 기조 속에서 중장기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 역량을 보유한 우수 리더들을 적극 발탁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모비스, 글로벌 수주 이어져… 고부가 사업구조 전환 가속

유럽·북미 등 완성차 업체 부품 공급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핵심부품 수주를 이어가며 해외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동화와 전장화 전환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현지 생산거점을 앞세워 유럽과 북미 시장 공략에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4분기 들어 제동·조향시스템과 섀시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품 수주가 이어지면서 올해 해외수주 목표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 오하이오공장.

현대모비스는 최근 유럽 완성차 업체로부터 전자식 회생제동 브레이크시스템(iMEB)을, 북미 고객사로부터 전자식 조향시스템(EPS)을 각각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두 품목을 합쳐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두 제품 모두 탑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현대모비스는 현지 경쟁업체를 제치고 공급사로 선정됐다. 향후 3~4년 뒤부터 최대 8년간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등 다양한 차종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생산체계도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유럽은 슬로바키아 공장을 활용하고 북미는 고객사 인근 생산거점을 통해 양산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유럽연합(EU)이 현지 생산 부품 사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스페인, 헝가리, 튀르키예 등에 구축한 생산 네트워크도 수주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북미 완성차 업체로부터 향후 7년간 공급하는 대규모 섀시모듈 수주도 확보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모듈과 핵심부품을 합쳐 145억 달러(약 20조원)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초 목표인 118억달러를 약 23% 웃도는 규모다. 차세대 전자기계식제동시스템(EMB)과 스티어 바이 와이어(SBW) 등 미래 핵심부품 수주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안정적인 양산 능력과 품질관리, 현지 고객 대응력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사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부품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영세 소상공인 세액공제마저 축소… 벼룩의 간 빼먹는 격”

송치영 소공연 회장 긴급간담회
세부담 최대 6000억 증가 우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
내년 봄부터 ‘줄폐업 쓰나미’ 경고

‘일법 패키지’ 결사 반대 재천명
정책 참여 확대·대통령 면담 요구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소공연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209만명은 당장 내년부터 19%, 최대 총 6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고 ‘미래대응기금’에도 200조원 이상이 쌓인다고 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으로 영세 소상공인 쌈짓돈부터 걷어가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2027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관련해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한도 역시 연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되는데 세액공제를 줄이면 결국 영세 소상공인에게 세금만 더 걷어가는 꼴이라는게 소상공인업계의 판단이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소공연이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2조9000억원), 2분기 대비 7.3% 급증했다. 게다가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661만원(-4.36%), 분기 평균 이익은 1020만원(-8.30%) 감소했다.

송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소상공인들은 정치·경제적 격변과 끝없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견뎌왔지만 연말 대목을 앞두고도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내년 봄부터 줄폐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닥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호소했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소공연은 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중심으로 한 소위 ‘일법 패키지’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에 나서 김영훈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원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나 홀로 사장님’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

소공연은 근로자추정제를 통해 최대 870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으로 1인당 연간 505만원(월 42만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44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회장은 “법률 대응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에게 반증 책임을 전가해 ‘퇴직금 폭탄’ 분쟁과 범법자를 양산하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며 “전체 산업 종사 자의 45% 이상을 책임지는 ‘고용의 저수지’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고용의 둑 자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장관을 향해선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만 밀어붙이는 ‘노동계 청부사’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격년제 도입·주휴수당 폐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라”고 전했다.

현 이재명 정부에는 주요 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대통령은 올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농어민과 각각 공식 대화 자리를 마련했지만 소상공인과는 한 차례도 공식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도하장비 ‘수룡’ 수출길 열어

獨 원제작사와 계약개정·수출권 확보
유럽·중동·아시아 등 수출 가능
K-방산 패키지 수출 확대 기대


군 장병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 자주도하장비(KM3) 수룡을 활용해 장비 도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의 해외 수출 권한을 확보했다. 우리 군 전력화로 검증받은 장비가 수출로 이어진 사례로, 자주포·장갑차 등 기존 주력 무기체계와 묶은 K방산 패키지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KM3의 원제작업체인 독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러피언 랜드시스템즈-브리지시스템즈(GDELS-BS)와 면허생산계약(MLA)을 개정해 해외 수출 권한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KM3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DELS-BS의 M3 자주도하장비를 들여온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장비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수입국이 M3의 수출 권한까지 확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KM3는 자주포와 전차, 장갑차 등 육군 주력 장비가 강과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생산해 2024년 6월부터 군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야전운용시험과 전력화 평가 등 주요 검증을 마쳤고 내년까지 1차 양산 물량을 공급한 뒤 2028년부터 2차 물량 전력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양산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생산량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계약 개정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가 커진 한국과 독일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됐다. 1차에 이어 2차 양산까지 추진되는 등 우리 군의 운용 사례가 쌓이면서 KM3를 찾는 해외 수요도 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최원혁 HMM 대표 연임… 사업 다변화 속도

2028년 3월까지 대표이사 임기 연장
사업 다변화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



HMM은 25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원혁 대표(사진) 이사를 재선임하고 연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원혁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HMM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원혁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안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HMM 이사회는 최 대표의 추천 사유에 대해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약 40년간 경력을 쌓아왔으며, HMM 및 LX판토스에서 약 10년간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검증된 경영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핵심 경쟁력 확보, 중장기 투자, 조직문화 개선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글로벌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표이사 연임을 통해 HMM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원혁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컨테이너선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벌크·자동차운반선·가스선 등으로 다변화하고, 장기 운송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선대 확대가 아니라 HMM을 컨테이너 해운 중심 기업에서 종합 해운·물류기업으로 전환이다.

/양성운 기자 ysw@

45년 혁신 일군 명문장수기업 12곳 선정

중기부, 매일식품·동화엔텍 등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45년 이상 혁신으로 성장한 명문장수기업 12곳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2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2026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한 80곳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혁신활동 등을 평가해서 12곳을 추렸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총 75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 타이틀을 얻게 됐다. 중소기업 중에선 광신기계공업, 대진코스탈, 동방전기공업, 매일식품, 명진TSR, 삼우금속공업, 이노블록, 제이피아이헬스케어, 한국OSG, 합동물류가, 중견기업 가운데는 동화엔텍, 서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명문장수기업 선정에는 업력과 함께 기업이 장기간 쌓아 온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경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반영된다. 중소기업으로 올해 81년이 된 매일식품은 간장·고추장 등 장류부터 조미료·라면 등 가공식품까지 생산하는 종합식품 제조기업이다.

업력 46년의 중견기업 동화엔텍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열교환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세계일류상품 6개를 보유하고 고압 LNG용 열교환기 세계시장 점유율 약 70%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조선·해양 기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에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돌아간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미래 여성 창업가 육성

학생 550명 창업 역량 키워

미래 여성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날 경기 광명시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을 열었다. 여경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전국 고교 및 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발굴부터 전문 멘토링, IP 코칭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취업을 촉진하고 미래 여성경제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550명의 학생이 참여해 총 382건의 창업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윤균중 삼성중공업 부사장 / 염철성 삼성중공업 부사장 / 김경수 삼성중공업 부사장

삼성重, 기술·제조 분야 핵심 인재 전진 배치

부사장 3명 등 총 10명 승진

삼성중공업이 주력 사업의 수행 능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제조 분야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중공업은 부사장 3명, 상무 6명, 마스터(Master) 1명 등 총 10명을 승진시키는 2027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와 LNG 운반선의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높이고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의 스마트·자동화 조선소 구축을 이끌 인재도 발탁했다. 삼성중공업은 조만간 정기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OTTERIA™
수탠다드핏
스모키 더블비프
든든한 더블 비프를
스모키하게 스타일링
오버핏
스모키 치킨비프
치킨과 비프에
훈연의 풍미까지
믹스매치
이번 시즌, 가장 맛있는 레이어드
목신사 목진장 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 넘어 산업 혁신으로… AI 전환 이끄는 주역 한자리에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과기정통부 주최, 본지 주관 개최
이장규 대표 "산업계 이정표이자 국가 경쟁력 높이는 자산 될 것"
AI 활용 우수사례 등 12개社 수상



25일 메타빌드 AI 스페이스센터에서 열린 '제 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에서 시상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우수 SW·AI 기술과 산업 현장의 혁신 성과를 발굴해 격려하는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이 열렸다. 올해는 실제 산업 현장의 도입과 활용 성과까지 조명하기 위해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을 신설했다. AI 확산으로 달라지는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메트로경제신문〉과 한국SW·AX총연합회·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메타빌드 AI 스페이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와 이우용 한국SW·AX총연합회장,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비롯해 SW·AI 업계 관계자와 수상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글로벌 ACX 초월대상'은 인공지능 전환(AX)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와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뿐 아니라 AI를 실제 업무와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도 함께 조명한다.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한계를 넘어 이뤄낸 여러분의 성과는 우리 산업계가 나아갈 확실한 이정표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의 건강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이우용 SW·AX총연합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우용 회장은 "초월대상은 기술이 가치를 창출시키는 역할, 산업 경제 넘어서 국내 넘어 세계로 도약하자는 의미"라며 "수상하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더 많은 기업이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AI 강국 도약하려면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확산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가 산정과 공공부문 발주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상에 앞서 진행한 강연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주목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태영 실장은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라 기존 시스템통합(SI)과 개발 시장은 축소될 수 있으며, AI 에이전트를 연결해 현장에서 운영하는 FDE 시장은 새로운 성장 영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실장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사용자 상호작용 중심 소프트웨어는 대체·축소되는 반면, DBMS·클라우드·보안 등 데이터와 인프라 영역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AI 도입·활용으로 업무 혁신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발굴하는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제품·서비스 부문과 인재 부문에서 총 3가지로 시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 추가되면서 3개 부처 장관상 총 4점이 수여됐다.

수상 기업은 제품·서비스 부문 9개 기업과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3개 기업 등 총 12개 기업이다. 인재 부문에서도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품·서비스 부문의 부처 장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고려아카데미컨설팅 'AIUP 학습플랫폼'·유신테크 'AI 도시통합에너지절감 및 환경제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상 엔시드 'NS-FMM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메타빌드 'LaMON AX' 등 4개 기업이 수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가온플랫폼 'AI기반 지능형운전상태 및 고장예측진단시스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더존비즈온 'ONE A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에어팩'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토스랩 '잔디' ▲전자신문 사장상 마드라스체크 '플로우' 등이 있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씨앤테크 '재정지원 설비 사후관리 관제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아라소프트 '아라오피스 기반 지식·제조데이터 융합 보고·자동화 AX 도입' ▲메트로경제신문사장상 한국자산관리공사 'AI기반 맞춤형 위험성평가 솔루션'이 선정됐다. 인재 부문은 고중훈 아이씨티웨이 이사가 한국SW·AX총연합회장상을 받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2026 韓 정부혁신박람회

KT, 공공기관 업무 혁신 AI 서비스 소개

5G 정부망 활용, 사무실 외 업무
기업형 에이전틱 AI 플랫폼 선봬

KT가 공공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중에 선보인다.

KT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AX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박람회에서 '공공의 일과 현장을 잇는 KT AX'를 주제로 ▲연결(Connect) ▲분석(Think) ▲실행(Act) 등 3개 공간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안전한 업무망 연결부터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 AI 에이전트를 통한 업무 처리까지 공공 AX 환경이 적용된 업무환경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다.

'Connect' 공간에서는 5G 정부망을 활용해 사무실 밖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선보인다. 노트북과 5G 에그를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거쳐 정부 업무망에 접속하고, 출장이나 현장근무 중에도 내부 업무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Think' 공간에서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서버와 KT AI 모델, API 플랫폼을 통합한 온프레미스형 AI 패키지 'NPU LLM 스테이션'을 소개한다.

전용망이나 폐쇄망에 구축할 수 있어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문서와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ct' 공간에서는 질의응답은 물론 데이터와 업무시스템을 연결해 실제 업무 수행까지 지원하는 기업형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 온'을 선보인다. 사용자의 업무 요청을 파악해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구성하고, 기관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조민선 기자

삼성SDS, 공공 AX 사례로 경쟁력 입증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 존 운영

삼성SDS가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AI 풀스택 역량과 주요 적용 사례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박람회에서 ▲AI 인프라 ▲AI 플랫폼 ▲AI 솔루션 등 3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클라우드부터 업무 플랫폼,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AI 서비스까지 공공 AX를 위한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AI 인프라' 존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가이드라인과 망분리 환경을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력을 소개했다. 특히 삼성SDS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인 'SCP 소버린'을 통해 보안 등급 상 업무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안 환경과 AI 인프라 역량을 제시했다.

'AI 플랫폼' 존에서는 공공 업무 환경에서도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과 주요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AI 솔루션' 존에서는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부처의 업무 생산성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현재 브리티웍스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총 18개 중앙부처, 22만 명이 사용 중이다.


삼성SDS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공공 분야 AX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月 1980원으로 온가족 건강관리 책임진다"

KT엠모바일, 부가서비스 선봬
의사 상담, 간병인 등 서비스 다양

KT엠모바일은 온가족이 건강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요금제 변경이나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부가서비스다. 가입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가격 부담을 낮췄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서비스는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주요 질병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 과정을 지원한다.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4시간 365일 의료진 건강상담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병원 및 전문 의료진 안내, 상급종합병원 진료예약 대행, 건강검진 맞춤 설계·할인예약·결과상담, 비급여 시술 항목 할인, 요양시설 안내 및 입소상담 등 다양하다.

질병 진단 이후에는 치료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뇌혈관질환·치매 등 노인성질환부터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암·심근경색 등 대상질병 진단 시 간호사 진료동행, 입원 시 간병인, 가사도우미, 방문재활운동, 차량 에스코트 등을 가입 기간 동안 가족 합산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1980원이다. KT엠모바일 다이렉트몰과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익시오'에 가족보호 알리미 기능 추가

LG U+, 보이스피싱 감지되면
최대 10명 가족 번호로 문자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ixi-O)'의 생활 안전 기능을 고도화한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사전에 등록한 가족에게 즉시 알려주는 '가족 보호 알리미 기능'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족 보호 알리미는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가족의 신속한 확인과 대응을 돕는 기능이다.

앞으로는 가족이 위험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화 중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위험을 경고했다.

익시오 이용자는 위험 상황을 전달받을 가족을 최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가 감지되거나 이용자가 112·119 등 긴급전화에 전화를 걸면 등록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된다. 가족은 이용 중인 통신사나 익시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출시에 맞춰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안내 기능도 개선했다.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기관 사칭, 금융 관련 사기, 카드 도용 사칭, 투자 리딩 사기, 대리구매 사기, 납치 협박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유형과 구체적인 이유를 통화 화면에 보여준다.

/조민선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20% 제한… 업계 "재산권 침해" 반발

금융위 '디지털자산업' 정부안
빗썸·코인원·고팍스 등 지분 초과
미래에셋 코빗 인수 등에 '변수'
3년 유예에도 초과 지분 매각 부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거래소들의 지분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기존 지분율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래소를 인수하거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안은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가상자산거래소)의 주식소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5대 거래소, 지분 조정 불가피…미래에셋 코빗 인수·네이버 두나무 주식교환도 영향

규제가 현실화하면 주요 거래소의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빗썸은 최대주주 빗썸홀딩스가 73.6%를 보유하고 있어 기본 상한에 맞추려면 지분율을 53.6%포인트 낮춰야 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25.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30.4%,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바이낸스 아일랜드 법인의 지분율이 67.5%다.

거래소 지분 규제는 신규 인수나 지배력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래에셋은 지난 7월 1414억원을 투입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현 디지털엑스)을 인수한 데 이어 자본 확충에도 나섰다. 지난 8월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달 16일 약 305억원의 추가 출자를 결정했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율은 98.13%로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지분 상한이 적용되면 미래에셋컨설팅은 98.13%에서 20%까지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도 변수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안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 한도가 적용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 예외 한도인 34%까지 보유를 인정받더라도 66%포인트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계획에도 지분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회사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와 예외 승인 여부가 향후 거래 구조의 변수로 꼽힌다.

◆3년 유예에도 초과 지분 우려…가상자산업계 "지분 규제 없애야"

정부는 거래소 지정 이후 3년간 지분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중소형 거래소에는 추가로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들이 지분 구조를 조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유예기간이 주어져도 대규모 초과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거래소 지분 매각은 일반적인 투자 지분 처분과 달리 경영권과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자 입장에서도 자금 부담과 투자 수익성, 향후 규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내놓더라도 이를 받아줄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분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최대 34% 예외 승인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도 잠재적 인수 후보군을 좌우할 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 상황인 만큼 매도하는 쪽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런 조건이라면 매도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향후 추가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지분 매각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유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이 적극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본이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세력이 지분을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 초기부터 투자와 경영을 통해 형성한 지배구조에 사후적으로 소유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규제"라며 "민간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어렵게 생존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갑자기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상당 부분 매각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의 위헌성과 헌법성 재산권 보호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침해되는 대체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앤트로픽 공모가 하회… 월가는 성장성 '낙관' 종투사 모험자본 11.6조… 플랫폼 첫 출자

그린슈 행사 종료 등 하락 압력
MSCI 글로벌 지수 편입 예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의 주가가 상장 나흘 만에 공모가 아래로 밀려났다. 상장 첫날 30% 넘게 치솟으며 형성된 기대감이 빠르게 식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앤트로픽은 전 거래일보다 5.74달러(6.5%) 내린 81.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 상장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공모가인 83달러를 밑돌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앤트로픽의 시가총액은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완전 희석 기준으로 약 1조5000억달러(약 2014조원)다.

최근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도 앤트로픽이 상승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전날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복귀 소식에 AI 관련주가 급등했지만 앤트로픽 주가는 오히려 1.4% 하락했다.



지난 2월26일 미국 뉴욕의 컴퓨터 화면에 앤트로픽의 홈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표시된 모습. /뉴시스

초대형 IPO가 상장 직후 공모가를 하회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는 상장 후 22거래일 만인 7월 15일 장중 처음으로 공모가 135달러를 하회했고,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도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 2012년 페이스북은 상장 이틀째, 2019년 우버는 상장 첫날, 2023년 Arm은 상장 6거래일째 공모가를 밑돌았다. 올해 7월 상장한 SK하이닉스 ADR도 12거래일 만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앤트로픽의 향후 주가에는 내부자 매물 출회 가능성과 주가 방어 수단 소진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부 임직원과 내부 투자자의 지분 매도가 상장 첫날부터 가능하고, 실적 발표에 따라 매도 물량도 늘어난다. 여기에 인수단의 초과배정옵션(그린슈) 행사로 공모가 아래에서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여력도 사라졌다.

반면 지수 편입은 새로운 매수 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앤트로픽은 오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MSCI 글로벌 스탠더드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다. 지수 리밸런싱 분석업체 인트로픽은 패시브 펀드가 연말까지 앤트로픽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월가의 기업가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다. 캐나코드제뉴이티는 이날 앤트로픽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5달러를 제시했다. 오펜하이머는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와 목표주가 150달러를 제시했다. 앞서 웨드부시도 앤트로픽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로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120달러로 내놓은 바 있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울산 벤처펀드에 출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액이 11조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와 벤처투자조합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첫 출자 사례가 나왔다. 증권사가 플랫폼에서 투자할 펀드를 찾고 운용사들의 제안서를 비교해 실제 출자까지 결정한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종투사 7곳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의무비율 산정 기준 11조6184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조9717억원 늘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공급비율은 19.5%로 올해 의무비율인 10%를 웃돌았다. 적용 대상은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IMA·발행어음 사업자 3곳과 KB·하나·키움·신한투자증권 등 발행어음 사업자 4곳이다.

이번에 첫 출자가 성사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은 금감원과 네이버페이가 증권사의 투자처 발굴을 돕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구축한 서비스다. 증권사는 플랫폼에 펀드 출자를 공고하고, 운용사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같은 양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벤처기업도 기업 정보와 투자 유치 자료를 올려 투자자에게 소개할 수 있다.

실례로 KB증권은 이 플랫폼에 출자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검토한 뒤 울산 소재 유니스트기술지주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기로 했다. 해당 조합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관광 사업 등 동남권 초기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출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4일 기준 플랫폼에는 증권사 19곳과 운용사 155곳, 중소·벤처기업 733곳 등 총 936개 회사가 가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전자주총 의무화 앞두고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1월 적용… 해킹 등 대비책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앞두고 법무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호텔에서 '2026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자주총에 대해서도 해킹과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주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로 통신장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회사 내부에 전자주총 관리 조직과 총괄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영상·음성·자료화면을 동시 송출할 물적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토스증권, 한 달 주가 흐름 한눈에 본다

'AI 시그널' 고도화

토스증권이 종목별 주가 변동을 개별 뉴스가 아닌 한 달간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AI 시그널'을 고도화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인 시점과 관련 이슈를 시간순으로 보여주고, 보유하거나 관심 등록한 자산의 가격이 변하면 분석 내용을 알림으로 전달한다.

25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새로 도입한 '최근 주가 흐름' 기능은 지난 한 달간의 주요 주가 변동과 관련 이슈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한다. 토스증권은 기사량과 주제의 신규성, 주가 등락과의 연관성 등을 평가해 주요 정보를 선별한다. 인공지능(AI)은 해당 기간의 변동 요인을 종합해 요약한다.

가격 변동 알림 대상도 넓혔다. 보유·관심 종목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뿐 아니라 관심 등록한 지수, 원자재, 가상자산 등의 가격이 움직이면 등락률과 AI가 분석한 변동 원인을 안내한다. 이용자는 알림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R&D 주52시간제 특례 절박… 초광역특구법 통과 절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기자간담회
韓서 1년 걸릴 사업 中선 3개월
근로시간 규제 글로벌 경쟁 족쇄

연구인력 주52시간제 특례 호소
건강권·임금 유지, 성과 중심 근무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인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특례 적용을 강력히 호소했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 법안 합의가 지연될 경우 R&D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25일 오후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밀리고 있느냐를 냉정히 보면 결국 ‘시간’과 ‘R&D’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중국 선전을 다녀오며 소름이 끼치는 경쟁하려는 의지를 느꼈다”며 “이 정도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중국 현지 사례를 들며 R&D 인력의 유연근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에 가있는 우리 기업(삼성전자 등) 현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1년 걸릴 프로젝트가 중국 현지에서는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한다”며 “중국은 페이퍼 워크나 ‘가짜일’ 없이 모든 일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시간 효율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52시간제 특례 적용이 ‘노동 착취’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는 블루칼라 기준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R&D 인력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 대상 인력의 고소득과 자발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 이그잼션(적용 제외) 형태로 논의될 수 있는 R&D 인력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며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일을 못하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얼마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노동부 허가를 받는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성과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절박하다는 표현은 중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성하고 했을 때 그럴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5극3특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지역 인재가 타지로 떠나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CPTPP에 대해서는 “한국이 여기 안 들어간다는게 이상하다”며 가입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단 중단”이라며 “농민단체 등과 제로베이스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농업의 식량안보 차원 보호를 고려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 프로젝트(텍사스·원전·알래스카)와 관련해서는 미국 중간선거 국면 탓에 진도가 더디다고 했다. 텍사스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특별히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면서도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사업이라 주민 전기요금 부담 우려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가 주지사와 상원의원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며 연방정부 추진력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 체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며 체코 산업장관이 12월 10일 방한할 때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막는다

3단계 선제적 보호대책 가동
신용보호·최대 1000만원 보상
금융권 이상거래 집중 감시

한국전력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3단계 선제적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 피해 예방 서비스 안내부터 신용보호·보상 지원, 금융권 이상거래 모니터링 공조까지 묶어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3일 열린 고객정보 유출 긴급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사장이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사 역량을 2차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명의도용과 비대면 금융거래를 막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은 지난 22일부터 ‘한전ON’ 공지사항에 안내문과 링크를 올렸으며, 알림톡·SMS·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를 이어간다. 유출 통지 고객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막는 금융위의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와 ‘엠세이퍼(Msafer)’ 또는 통신사 PASS·카카오뱅크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을 알리거나 막는 ‘휴대전화 무단개통 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특히 고객들이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 NICE평가정보의 ‘지키미케어십’ 이용권을 무상 배부한다. 별도 신청 없이 한전에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되는 등록번호를 ‘나이스지키미’ 회원가입 후 등록하면 불법 신용조회 차단과 본인인증 차단, 약관에 따른 피싱·해킹 금융사기 최대 1000만 원 한도 보상보험 혜택을 1년간 받는다. 이용권은 25~26일 이틀간 순차 발송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한전과 NICE평가정보는 1년 경과 시 별도 해지 없이 자동 종료되도록 하고, 제휴사 마케팅 동의 요구나 부가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를 막아 이용자 부담을 낮췄다.

한전은 아울러 금융기관과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전은 24일 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마쳐 유출 고객 대상 집중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으며, 은행 등 45개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에서 알바로 라리오(오른쪽 4번째)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IFAD, 개도국 농업 발전협력 확대

송미령 장관, 라리오 총재와 면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간 협력이 확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IFAD 측에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25일 서울 모처에서 알바로 라리오 IFAD 총재와 만나 ▲농업 협력사업의 성과와 기여 ▲한국인 진출 확대 등을 논의했다. IFAD는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된 농업분야 국제 금융기관이다.

라리오 총재는 농식품부-IFAD 협력사업이 개도국의 농업 현대화와 소농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제14차 IFAD 기금(2028~2030년)은 기후변화 대응·농촌일자리 창출·청년 지원·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기여를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T
노사 함께 윤리실천 다짐
부당한 지시·청탁 거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사 양측이 함께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지시 및 청탁에 대한 거절’ 등을 선언했다. 지난 24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나주 본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김창국 사장직무대행과 서권재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윤리경영 관련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aT 노사는 ▲직위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 준수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 ▲부당한 지시와 청탁의 단호한 거절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인권 헌장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따른 거절’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업무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축평원, 정부혁신 박람회서 AX 성과 공개
AI 기반 축산물 품질평가 혁신
등급판정·AI 비서 체험존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기관의 AX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AX란 단순히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흐름 및 데이터 활용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축평원은 2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행사장 내 ‘AI 축산 랩(LAB)’ 부스를 설치하고 AX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축평원은 앞서 이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6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당시의 수상작 ‘등급판정의 눈, AI로 전환하다’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주요 전시 내용은 AI 기반 축산물 품질평가를 통해 등급판정 시간을 줄인 성과와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상품 개발과 농장 경영에 활용한 사례들이다. 등급판정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통업체·소비자의 구매 선택 및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출하 결정 등에 활용되는 과정 등을 조명한다.

AI 축산 랩은 부스 내 4개 전시 구역에서 AI 전환 성과를 관람객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체험형 콘텐츠가 특징이다. ▲축산유통 AX 성과 전시존 ▲AI 등급판정 장비 체험존 ▲‘축산 AI 비서’ 서비스 체험존 이벤트존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윈윈 아너스’ 선정
수자원공사, 中企와 수도시설 보안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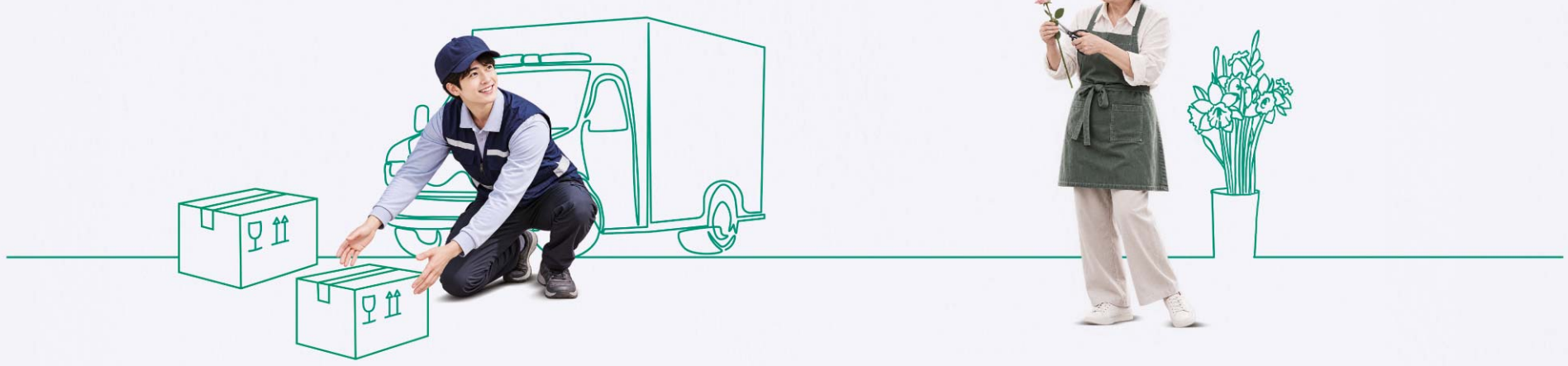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사업인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AI 확산으로 핵심 기반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수도시설 보안 기술 공동개발·실증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4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수여식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협력 과정과 공동 성과를 종합 심사해 모범 사례를 뽑는다. 공사는 2024년 데이터 개방 플랫폼 ‘워터라운드’를 통한 디지털 물관리 솔루션 개발, 2025년 대청댐 지역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친환경·탄소중립 모델 구축에 이어 올해 보안 기술 협력으로 상생 영역을 넓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사용자 인증 보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센스톤과 성과공유제를 통해 추진한 수도시설 보안 기술 공동 개발 및 실증이다. 양측은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증·접근 통제 체계를 구축해 검증을 마쳤다.

/세종=한용수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경북, 5대 첨단·전략산업 인재 육성… 4년간 2360억 투입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 계획
AI·로봇 분야 등 4만2000명 양성
대학 거점으로 청년 지역정착 유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가 4년간 2360억 원을 투입해 대구·경북 5대 첨단·전략산업 인재 4만 2000여 명을 양성한다. 대상 분야는 AI 반도체, 첨단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다.

도는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학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삼고 기업과 함께 인재를 키워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첨단산업 단과대학 운영, 전략산업 앵커 대학 완성, 초광역 공유대학 거버넌스 구축, 성장엔진 인재 육성 등 4개로 추진한다. 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경북 앵커 사업비로 재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에는 590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단과대학에는 8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로봇·이차전지 분야 인재 1만 5000명을 양성한다. 대학과 기업이 특성화 계약학과와 융합연구원, 기업 공동연구소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양성기관은 내년 초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한다. 특성화 계약학과에서는 주문식 교육 등을 추진한다.

전략산업 앵커 대학 사업은 600억 원을 들여 AI·첨단 모빌리티·바이오 분야 인재 2만 명을 키운다.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가 참여하며 경북 AI 융합원 가동과 항공·방산 분야 기업 공동 프로젝트, 바이오 융합 전공 운영을 추진한다. 교육·연구 혁신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초광역 공유대학 사업에는 360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대의 자원을 지역 특성화 대학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북 8개 대학과 대구 지역 대학,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로봇·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 분야의 공동 교육과 산학 공동 연구 등을 통해 3,900명을 양성한다.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은 경북도와 금오공대가 주관하고 대구시와 대경권 대학, 기업, 고등학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정부 공모에서 S등급을 받아 600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금오공대 등 대경권 8개 대학, 반도체·로봇 등 지역 기업과 함께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 제조 로봇 분야의 인재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8개 대학이 공동교육과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One-Campus', 취·창업과 정주를 연결하는 'One-Career', 기업 수요형 공동 연구와 기술이전을 묶는 'One-Chain' 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도는 대학과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추진단(TF)을 가동한다. 4개 사업을 연계해 분야별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장비 구축·공유를 추진하고, 대학과 청년 정책, K-U시티 등을 연계해 인재 양성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앵커 체계에서 인재를 키우고 청년 정책으로 성장과 도전을 지원한다. 도는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사업 첫 결실

경기도의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을 받은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이 성공사업화료 약 1억 6000만 원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24일 리벨리온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3억 2000만 원의 절반을 납부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1억 원 이상 선투자한 도내 기술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투자·보육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매출 증가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인 기업은 지원금의 50%를 성공사업화료로 납부한다. 납부금은 후속 창업기업 지원에 쓰인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밀양시

'열린관광지 사업' 10억 투입

경남 밀양시의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영남루 권역 수변공원이 '2027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밀양시는 두 관광지의 이동 여건과 편의시설, 관광 안내체계 개선에 총 1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으로 마련한다.

시는 관광지별 특성과 방문객 이용 여건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정하고, 권역별 컨설팅을 거쳐 2027년 2월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밀양(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포항시

북극항로 특화항만 전략 모색

포항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항영일만항 북극항로 시대 대전환 전략 포럼'을 열고 영일만항 특화와 AI 기반 해양·항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포항시와 경북도,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과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부와 해양·항만 관련 기관 관계자,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포럼에서 나온 제안으로 전략을 보완해 정부의 북극항로 관련 정책과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국립창원대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권

국립창원대학교가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1801~2000위 구간에 처음 진입했다. 대학 자체 분석에서는 의과대학이 없는 국내 대학 가운데 14위로 집계됐다.

국립창원대는 지난 9월 30일 발표된 THE 세계대학평가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세부 지표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찾고 중장기 발전전략과 성과 관리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살펴보세요"

전남광주, 정보 플랫폼 '칩온' 운영
시민들에게 추진 현황·비전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업 추진과 핵심 기반시설, 향후 일정 등 시민의 눈높이로 제공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과정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 플랫폼 '칩온(CHIP ON)'을 본격 운영한다.

'칩온'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현황과 기반시설 준비 상황, 향후 절차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됐다. 딱딱한 사업 설명에서 벗어나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시민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영상플랫폼인 '칩온(ON) TV'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시민온(ON)'에서는 산업단지 위치와 조성 일정, 전력·용수 공급, 일자리와 교통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문답형식으로 안내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과 주요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배미경 대변인은 "칩온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특별시 전남광주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충남도, '도립파크골프장' 사업 본격 추진

기본·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충남도가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총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108홀 규모의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충남도는 도청에서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 코스 배치와 부대시설 등 세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 21만 5141㎡(약 6만 5000평) 부지에 108홀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말 공사 발주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감도. /충남도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공사를 발주하는 등 목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산상의, 지역 상공업 기여 기업인 선정

김현겸·김종오·이오선 수상

부산상공회의소가 제44회 부산산업대상 수상자로 지역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경영 부문 김현겸 ㈜팬스타라인닷컴 회장, 기술 부문 김종오 ㈜펠릭스테크 회장, 사회공헌 부문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회장이다. 부산상의는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

김현겸 회장은 2002년 부산~오사카 항로에 국적 카페리 '팬스타 드림호'를 취항시키고 중국 석도~군산·부산~오사카 복합운송 항로를 개척했다. 같은 해부터 장애인 부부와 취약계층 대상 무료 크루즈도 운영했다.

김종오 회장은 1998년 창업해 단조 기술을 개발했으며 2007년 상용차용 디젤엔진 단조피스톤 양산에 성공했다. 사우디 아람코 공급업체 등록과 액화수소·항공엔진·반도체 공정용 부품 개발도 수상 배경이다.

이오선 회장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표면처리 공장을 최근 7년간 약 1500명에게 공개했다.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29명 중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체육·장학 후원도 이어왔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울진군, 지역인재 원자력 분야 취업 지원

내일 '원자력 기업 홍보·채용박람회'

울진군이 원자력산업과 지역 인재를 연결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홍보 및 채용박람회를 마련했다.

울진군은 오는 27일 울진군민체육관에서 '2026 울진 원자력 기업 홍보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일대학교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울진군 등이 후원한다. 지역 학생과 청년들에게 원자력 분야의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원자력산업과 관련 기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현대건설 등 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설명회에서는 주요 사업과 직무,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공동부스에서는 기업별 홍보와 채용상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학 전공 체험과 진로·취업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응급구조 체험과 퍼스널 컬러 진단,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이번 박람회가 지역 학생과 청년들이 원자력 관련 기업과 직무를 직접 알아보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내수 성장 한계… 편의점업계, 'K-푸드' 해외 영토 넓힌다

국내 점포 줄고 점포당 매출 증가
현지 맞춤형 상품으로 경쟁력 강화

GS25, 캄보디아에 첫 매장 개점
CU, 내년 상반기 해외 1000호점
이마트24, 동남아 점포망 확대


GS25 캄보디아 1호점 '올림픽스타디움점'이 현지 고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한 고객이 삼각김밥을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국내 편의점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체브랜드(PB)와 컬래버레이션 등 차별화 상품을 앞세워 점포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한편 해외에서는 K푸드와 한국형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점포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사업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MF) 방식으로 투자 부담과 사업 리스크도 낮추는 전략이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 4사의 점포 수는 5만3348개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은 2.9%, 점포당 매출은 3.6% 증가했다. 점포 수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개별 점포의 상품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소비 침체로 내수 시장의 추가 성장이 제한적인 만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곳은 GS25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캄보디아 현지 기업 메타 리테일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일 수도 프놈펜에 첫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2018년 베트남, 2021년 몽골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진출국이다.

약 400㎡ 규모의 캄보디아 1호점에는 '유어스', '리얼프라이스' 등 PB 상품을 포함해 약 3000종의 상품이 들어섰다. 붕어빵과 삼각김밥, 즉석식품 등 한국형 먹거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구성하고 카페형 취식 공간을 마련해 현지 젊은 층을 겨냥했다.

정춘호 GS리테일 편의점BU장은 "베트남과 몽골에서 축적한 해외 사업 경험과 한국형 편의점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며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25는 베트남 461개, 몽골 284개, 캄보디아 1개 등 총 746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까지 해외 1000호점을 돌파하고 향후 10년 내 캄보디아에서 50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CU와 이마트24도 해외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CU의 지난 10월 말 기준 해외 점포는 몽골 672개, 말레이시아 188개, 카자흐스탄 74개, 미국 하와이 5개 등 총 939개로 지난해 말보다 177개 늘었다. BGF리테일은 내년 상반기 해외 1000호점을 돌파하고 2028년까지 진출 국가를 5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24는 이달 기준 말레이시아 110개, 캄보디아 50개, 라오스 2개, 인도 1개 등 총 163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점포를 각각 150개,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2024년 국내 편의점 가운데 처음으로 진출한 캄보디아에서는 2029년까지 200개 점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내 편의점업계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한 소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K컬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한류 수요를 활용하는 동시에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K푸드로 고객을 유인하고 현지화 상품을 통해 일상적인 소비 채널로 자리 잡는 전략이다.

GS25는 베트남에서 현지식 찐빵인 '반바오'와 떡볶이, 김밥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GS25 베트남 합작법인의 매출은 9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다.

CU는 몽골 전통 음식인 찐만두 '보즈'와 튀김만두 '호쇼르'를 간편식으로 개발해 한국식 라면, 크림빵 등과 함께 판매한다. 몽골 현지 운영사 프리미엄넥서스의 올해 1~9월 영업이익은 약 19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약 183억원)을 넘어섰다.

이마트24도 캄보디아에서 K푸드 중심의 즉석 먹거리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일평균 매출이 진출 첫해인 2024년보다 41%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차세대 한식 셰프 육성 앞장

경주·부산서 마스터 클래스
셰프 26명 지역 발효문화 탐구
전국서 차세대 셰프 160명 육성

CJ제일제당이 차세대 한식 셰프들과 지역 식문화 및 전통 식재료를 탐구하며 K-푸드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K-푸드 인재 육성 플랫폼 '퀴진케이(Cuisine. K)'의 일곱 번째 마스터 클래스를 지난 23~24일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차세대 셰프 26명이 참여해 경상도 지역의 해산물 발효 문화를 살펴봤다.

'시간이 만드는 바다의 맛'을 주제로 열린 이번 클래스는 식품명인 강연과 지역 생산현장 견학, 요리 챌린지 등으로 구성됐다. 장종수 명란젓 명인과 김헌목 멸치젓 명인, 차은정 신라전통음식 명인이 참여해 전통 발효 방식과 지역 식문화에 담긴 지혜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부산 기장시장과 대변항을 방문해 수산물 생산·유통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상인들과 교류했다. 명란 생산기업 덕화푸드에서 장종수 명인의 발효 이론을 듣고 공장을 견학했다. 직접 젓갈을 담그고 종류별 명란젓을 비교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신라음식 체험관 라선재에서 김헌목 명인의 멸치젓 발효 강연과 실습이 진행됐다. 차은정 명인에게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수산물 발효·저장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후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구한 식재료에 명란젓과 멸치젓을 활용해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하는 요리 챌린지를 진행했다.

2023년 10월 충북 청주에서 시작한 퀴진케이 마스터 클래스는 이번까지 7개 기수, 전국 10개 도시에서 운영됐다. 지금까지 차세대 셰프 약 160명과 식품명인 및 전문 셰프 등 멘토 23명이 참여했다. 참가자에게는 1박 2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숙박과 식사, 클래스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최근에는 마스터 클래스 출신 셰프들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연주·이찬양 셰프와 퀴진케이 출신 첫 오너 셰프로 올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배요환 셰프 등이 대표적이다.

CJ제일제당은 마스터 클래스에 이어 심화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퀴진케이 살롱'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백화점, 체험형 전시로 연말 고객몰이

크리스마스 마켓 연계 예술 전시

롯데백화점이 전시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접목한 아트 콘텐츠로 연말 집객에 나선다. 잠실 에비뉴엘 6층 아트홀이 2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체험형 전시 '더 롱기스트 나잇(The Longest Night)'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같은 기간 잠실 잔디광장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켓의 배경인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고딕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겨울밤의 분위기를 예술 작품으로 구현했다.

국내 작가 4명이 참여해 유화부터 공예, 식물 조형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디자인·인테리어 시상식 '파리 메종&오브제'에서 '라이징 탤런트' 부문을 수상한 인영혜와 명품 브랜드 및 K팝 아티스트와 협업한 디렌리, 하이이화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가 이채원의 유화도 전시된다.

100평 규모의 전시장은 '신비로운 숲', '꿈속의 존재들', '미지의 풍경' 등 세 구역으로 조성된다. 관람객은 각 구역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겨울밤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추리형 미션 게임도 마련했다. 입장 시 '한밤의 미스터리 수사단' 카드를 받고 전시를 관람하며 각 구역에 숨겨진 단서를 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미션을 완수하면 참여 작가 4인의 대표 작품을 담은 한정판 굿즈를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롯데웰푸드, 칸쵸 호빵 라인업 확대

옥수수·초코호빵 2종 선봬

롯데웰푸드가 인기 과자 '칸쵸'의 캐릭터를 활용한 호빵 시리즈를 확대한다. 신제품을 통해 제품에 재미 요소를 더하고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롯데웰푸드는 기존 칸쵸 호빵 3종에 이어 '칸쵸 옥수수호빵'과 '칸쵸 초코호빵' 등 신제품 2종을 추가로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이달 초 출시한 단팥·야채·피자 호빵의 후속 라인업이다. 옥수수호빵은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를, 초코호빵은 진한 초콜릿의 달콤함을 강조했다. 호빵 윗면에는 칸쵸 캐릭터와 다양한 사람 이름을 새겨 넣어 제품을 먹는 재미와 함께 이름을 찾아보는 요소를 더했다.



칸쵸 초코호빵. /롯데웰푸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열리는 '내 이름을 찾아라'는 제품을 구매한 뒤 호빵 윗면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지인의 이름을 찾아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11번가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장식 소품 최대 20% 할인

11번가가 크리스마스 소품을 한자리에 모아 할인 판매하는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트리부터 인테리어·파티 소품, DIY(Do It Yourself·직접 제작) 키트까지 다양한 시즌 소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최근 열흘(13~22일)간 11번가 내 '크리스마스 소품'(102%), '크리스마스 리스'(49%), '크리스마스 장식'(48%), '크리스마스 트리'(32%) 등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직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CJ온스타일, 개성 살린 키즈 패션 인기

유아동 패션 매출 95% 증가

부모의 취향을 아이의 옷차림에도 반영하고 아이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면서 유아동 패션 시장의 브랜드 지형도 달라지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유아동 패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 성장과 함께 상위 10위권 브랜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CJ온스타일 유아동 패션 매출 상위 10위권에 오른 대형 스포츠·아웃도어·SPA 브랜드의 키즈라인이 올해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개성을 앞세운 키즈 전문 브랜드들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부모들이 있다. CJ온스타일에서 유아동 패션을 구매한 고객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8.5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패션 취향을 아이의 옷차림에도 반영하고 아이만의 스타일을 사진으로 기록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J온스타일은 올해 '히로(HIRO)', '산(SANN)', '므므브' 등 키즈 패션 전문 브랜드를 발굴했다. 이들 브랜드는 CJ온스타일 입점 1년이 채 되지 않아 올해 유아동 패션 매출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캐릭터와 협업한 '밀크베이비', 글로벌 캐릭터를 활용한 '케어베어' 등 각기 다른 콘셉트의 브랜드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서현 기자

낯선 신제품보다 익숙한 히트작… 불황에 스테디셀러 변주

식품업계, 新 브랜드 안착률 10% 미만
검증된 '아는 맛' 스테디셀러 확장
식감·원재료·규격 바꿔 소비자 공략



(왼쪽부터)하림 '크런치킹 치킨너겟', 농심 '신라면 해물&어묵', 투썸플레이스 '크초생', 스타벅스 '모찌 쏙 바스크 치즈케이크'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실패 확률이 높은 생소한 신제품 대신 이미 검증된 '아는 맛'을 찾으면서 기존 스테디셀러의 외연을 넓히는 파생상품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는 완전 신제품 출시보다 인지도와 충성도가 확보된 메가 브랜드에 식감·원재료·규격 등 한두 가지 변주를 주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트렌드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진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흥행 타율을 높이려는 계산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전년 대비 각각 2.9% 오르며 연중 최고 수준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의 보수적 소비 성향이 짙어졌다.

기업 입장에서도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업계에서 신규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꼽힌다. 유행 주기마저 수개월 단위로 짧아지면서 막대한 초기 마케팅 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내놓기보다 충성 고객이 확보된 메가 브랜드에 식감·원재료·규격 등 한두 가지 변주를 주는 '핀셋 리뉴얼'이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해법으로 부상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식감과 시각적 재미를 강화해 기존 제품의 한계를 돌파하는 시도가 눈에 띈다. 하림은 1992년 출시 이후 34년간 시장을 지켜온 대표 제품 치킨너겟의 후속작으로 '크런치킹 치킨너겟'을 내놨다. 기존 제품이 국내산 닭가슴살 특유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육질에 집중했다면, 신제품은 곡물 빵가루를 입혀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전문점 수준의 바삭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하트·별 등 8가지 모양을 적용해 '펀슈머(Fun+Consumer)' 성향과 아이들 간식 수요를 동시에 겨냥했으며, 1kg 대용량 패키지로 고물가 시대에 '집밥·쟁여두기' 트렌드까지 파고들었다.

장수 브랜드의 헤리티지에 스타 셰프의 레시피와 한정판 희소성을 결합한 사례도 있다. 농심은 올해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에드워드 리 셰프와 공동 개발한 '신라면 해물&어묵'을 한정 출시했다. 사골·해산물·채소 베이스에 어묵의 풍미를 더해 신라면 고유의 매운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깊고 칼칼한 국물 맛을 구현했다. 40년 된 국민 라면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 등으로 높아진 미식 트렌드를 반영해 브랜드 노후화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는 검증된 히트작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규격을 키우는 방식으로 연말 특수를 공략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 1520만 개를 돌파한 간판 케이크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의 파생 모델 '크초생(크림탑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을 선보였다. 바닐라 빈 마스카포네 생크림을 더하고 초콜릿 함량과 크런치 초코볼 비중을 기존 대비 1.5배 늘려 스몰 럭셔리를 추구하는 디저트 마니아층의 재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스타벅스 역시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의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출시 4개월 만에 40만 개 이상 팔린 '모찌 쏙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기존 조각 형태에서 홀케이크로 확대 출시한 것이다. 개별 소비에서 입증된 인기를 연말 파티와 홈파티 모임 수요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포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파편화되고 불황형 소비가 고착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낯선 브랜드로 모험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스테디셀러가 가진 신뢰도에 의외성을 한 스푼 더하는 전략은 소비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선함을 동시에 주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JW중외제약, '식도염 신약' 국책과제 선정

STAT6 표적 호산구성 식도염 치료제
18개월간 비임상 단계 정부 지원 받아

JW중외제약은 STAT6 표적 호산구성 식도염 치료제 연구가 '2026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의 비임상 단계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하에 C&C신약연구소가 14개월간 선도물질 최적화를 진행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JW중외제약으로 기술이전되어 후속 비임상 지원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선정으로 향후 18개월간 비임상 연구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연구 대상인 후보물질은 JW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연구개발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를 통해 발굴한 경구용 저분자 화합물이다. 제2형 염증 반응의 핵심 조절인자인 STAT6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직접 저해하는 작용기전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을 갖고 있으며,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항염증 효능을 확인했다.

주요 적응증인 호산구성 식도염은 식도 내 과도한 제2형 면역 반응으로 호산구가 침윤·축적돼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 질환이다. 장기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하며, 새로운 기전의 표적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다.

STAT6는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 자극에 반응해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호산구를 식도 조직으로 유인하는 이오탁신-3(Eotaxin-3) 발현에도 관여하는 핵심 인자다.

JW중외제약은 이번 과제를 통해 임상 진입을 위한 약물동태, 독성 등 비임상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호산구성 식도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다양한 제2형 염증성 질환으로의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선도물질 최적화에 이어 이번 비임상 연구 과제까지 연속 선정되며 AI 기반 신약 연구를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STAT6를 선택적으로 직접 저해하는 경구용 혁신신약 후보물질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해 호산구성 식도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국제약, 재생 소재로 사업 영역 확대

시지메드텍과 차세대 ECM 시장 공략

동국제약이 기존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중심의 미용성형 제품군에 인체조직 기반 차세대 재생 소재까지 더하며 국내외 미용의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동국제약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시지메드텍과 동종진피 기반 세포외기질(ECM) 인체조직 제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각 사의 핵심 강점을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시지메드텍은 성남에 위치한 인체조직 연구·생산 거점 '리젠 허브'를 중심으로 원료 관리부터 가공·생산, 품질관리, 공급까지 전 제조 과정을 전담한다. 동국제약은 공급받은 제품의 본격적인 사업화와 영업·마케팅을 맡아 시장 안착을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동국제약은 이번 제품 도입을 계기로 에스테틱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게


지난 24일 동국제약 본사에서 유현승 시지메드텍 대표와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약

된다. 현재 히알루론산(HA) 필러 '벨라스트',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스주', 지방분해주사제(DCA) '밀리핏', 스킨부스터 '마데키엘' 등을 구축한 데 이어, 동종진피 ECM 제품군까지 확보해 시술 영역별 맞춤 솔루션을 완성한다.

특히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동국제약은 지난 7월 국내외 에스테틱사업부를 글로벌사업본부로 통합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알에프바이오, 국제 의료기기 품질 인증

글로벌 규제 대응 강화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알에프바이오가 국제 의료기기 단일심사 프로그램인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알에프바이오는 원주 공장이 글로벌 시험·검사·인증(TIC) 전문기관인 TUV SUD(티유브이슈드)의 심사를 거쳐 MDSAP 인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티유브이슈드는 160여년 역사를 가진 독일계 글로벌 시험·검사·인증 전문기관으로, 오랜 업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췄다. MDSA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 5개국 의료기기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국제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프로그램이다.

알에프바이오는 MDSAP 인증을 얻으면서 브라질 진출을 위한 현지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관련 규제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성능과 안전성뿐 아니라 제조사의 품질경영시스템과 지속적인 규제 대응 역량이 시장 진입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알에프바이오는 생산 시설에 대한 MDSAP 인증을 계기로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에 대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바이어 및 유통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시스템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에프바이오 김주석 품질보증팀장은 "이번 MDSAP 인증 획득은 당사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글로벌 인증 전문기관인 TUV SUD의 심사를 통해 해외 주요 시장의 규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HK이노엔-키움증권, 숙취·절세 이색 팝업

도심에 '크크펜션' 오픈

송년회 술자리가 잦아지고 연말정산 절세에 관심이 쏠리는 연말 시즌, 직장인들의 두 가지 현실 고민을 묶은 이색 행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펼쳐진다.

HK이노엔은 숙취해소 브랜드 '컨디션'과 키움증권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계한 팝업 스토어 '크크펜션'을 오는 12월 6일까지 서울시청 인근 '서울마당'에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크크펜션'은 컨디션과 키움증권의 초성 'ㅋ'에 연금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펜션(Pension)'을 결합한 명칭이다. 숙취해소제와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높아지는 연말을 맞아, 금융과 숙취해소라는 이질적인 영역을 유쾌하게 다룬다.

현장은 방문객이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과 같이 놀 컨디션 바'에서는 컨디션 헛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자몽맛·메론소다맛 등을 활용한 특제 음료 4종을 취향에 따라 맛볼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과 컨디션을 주제로 네컷 사진을 남기는 '크크 사진관', 퇴직연금 납입에 따른 절세 혜택을 직접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계산기' 등도 마련됐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이어가며 유익함과 즐거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평생 빛나며 살라고 이도윤
평생 나답게 살라고 나다은
평생 뛰어나게 살라고 김수
평생 곱게 살라고 김꽃님
평생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 이름
이름에 담긴 바람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의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평생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인물이 되라고
이정재



코웨이,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진행

25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경영전략 학회 ASL과 첫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연세대·고려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 경영학회 SBA(Sharing Business Analysis)와 프로젝트를 함께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학생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약 3주간 ▲정수기 고객 접점 확대 전략 ▲자가관리 고객 맞춤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팀별로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코웨이



에이스침대, 루게릭병 환우 위해 기금 1억 기탁

에이스침대가 루게릭병 환우들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승일희망요양병원 운영 기금 1억원을 기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가로 실천했다. 이번 기탁으로 누적 후원금은 총 5억원에 달한다. 이광진 에이스침대 영업본부장(왼쪽)과 승일희망재단 로션김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스침대



CJ대한통운,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 지원

CJ대한통운은 구세군 종, 자선냄비, 봉사자 점퍼 등 '2026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을 전국 17개 시·도 350여개 거점으로 배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대한본영에서 집화된 물품은 CJ대한통운의 통합 배송 브랜드 '오네(ONE)'의 전국 물류망을 통해 각 지역으로 전달된다. /CJ대한통운



CJ올리브영, K-뷰티 청년 인재 육성 박차

CJ올리브영은 K뷰티 인재 육성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이 퍼스트 미라클' 2기와 수료생 커뮤니티 '미라클 클럽'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뷰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2기 교육생에게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 뷰티 기업 현장 체험,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CJ올리브영



셀트리온, 멸종위기 '저어새' 서식지 보전 활동

셀트리온은 시민단체 '저어새와 친구들'과 협력해 인천 남동유수지 내 인공섬인 '저어새섬'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서식지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셀트리온 임직원들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저어새섬의 안정적인 번식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셀트리온

포스코DX, 직원 AI 아이디어 업무 적용·사업화 추진

'AX 해커톤 2026 시즌 2' 열어
68개팀, 154명 직원 참여
'1인 N에이전트' 문화 확산 주력

포스코DX가 직원 주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포스코DX는 지난 24일 판교사옥에서 'AX 해커톤 2026 시즌 2'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총 68개 팀, 154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사내 핵심기술 전문가와 AX 기술 전담 임원 등의 심사를 거쳐 ▲온톨로지 기반 암묵지 수집 에이전트 ▲시스템 API 자동 생성 에이전트 ▲PLC 리버스 엔지니어링 플랫폼 ▲AI 기반 MES 테스트 플랫폼 ▲지능형 공급망 모니터링 플랫폼 등 5개 아이디어가 최종 결선에 올랐다.



포스코DX '2026 AX 해커톤 시즌2'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DX

대상은 PLC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동화 플랫폼을 구현한 오민우·정혜원·송진오 프로가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포상과 해외 AI 콘퍼런스 참관 기회가 제공된다.

포스코DX는 우수작을 추가 개발·고도화해 현업에 적용하고 외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 상반기 개최한 시즌 1의 출품작들도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 자원관리 에이전트 '도비'는 여러 시스템과 엑셀 파일에 분산된 인프라 운영 정보와 사용률 등을 자연어 질의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배터리·소재 정보 공유를 위한 AX 인사이트 포털 등 다른 출품작들도 현업 적용 또는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DX는 모든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1인 N에이전트'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내 AX 소통 채널인 'AX 빌리지'를 개설해 직원들의 AI 활용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DX 관계자는 "업무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도전과 협업을 지원해 이들의 AX 역량이 업무와 사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소방관 지원 공로 인정

'시슐랭 스타 10선' 기업 선정
무인소방로봇 기증 등 사회 공헌

현대자동차그룹이 첨단 로봇 기술부터 의료·휴식 지원까지 소방관의 안전과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시슐랭 스타 어워즈'에서 '시슐랭 스타 10선' 기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시슐랭 스타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우수 기업 선정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무인소방로봇 기증과 국립소방병원 지원, 소방관 회복지원차 기증 등 다양한 소방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소방청과 공동 개발한 무인소방로봇 4대를 기증했다. 무인소방로봇은 고열과 짙은 연기 등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 먼저 투입돼 원격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대원의 안전한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무인소방로봇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 /현대차그룹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에 구급차 2대와 재활 로봇 3기, 고압산소치료기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소방관의 휴식과 회복을 돕는 회복지원차 10대를 전국 소방본부에 전달했다. 2024년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EV 드릴 랜스'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SDI 울산사업장, 녹색경영 '대상'

'녹색경영 우수기업'서 장관상
폐수 90%, 폐기물 99.9% 재활용

삼성SDI 울산사업장이 정부가 주관하는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이차전지 업계 첫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수자원 관리와 탄소 감축, 자원순환 전반에서 성과를 쌓아온 점을 인정받았다.

삼성SDI는 울산사업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에서 우수 녹색기업 부문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녹색경영 우수기업은 환경경영 성과가 뛰어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정부 제도로, 우수 녹색기업과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ESG 경영(개인) 등 부문으로 나뉜다. 울산사업장이 대상을 받은 우수 녹색기업 부문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 관리 등에서 성과를 낸 기업이 대상이다.

울산사업장은 오염물질 저감과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에 1999년 처음 이름을 올린 뒤 27년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기후부의 물 절약 사업에서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사업장에 선정됐다. 폐수 재이용률을 90%로 높이고 상수도 사용량을 연간 약 7만4000㎥ 줄인 실적이 반영됐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간 약 5000톤(t) 줄였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99.9%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즈의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에서도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았다. 삼성SDI는 이 같은 사업장 환경 성과를 바탕으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DJBIC)에 21회 편입돼 최다 편입 기록을 세웠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도 AA등급을 받았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9개 제품 우수디자인 선정

무선 스피커·공기청정기
'1인 가구 위한 디자인 특별상'

LG전자가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국내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에서 총 9개 제품을 수상·선정 명단에 올렸다.

LG전자는 '2026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과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선 스피커 'LG 엑스붐 미니'와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미니'는 산업통상부장관상에 해당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디자인 특별상'을 받았다.

엑스붐 미니는 간결한 디자인과 모듈식 구조를 적용해 제품 호환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퓨리케어 에어로미니는 설치 공간과 사용자 생활 방식에 따라 액세서리(UP-Kit)를 결합해 공기청정뿐 아니라 조명, 수납, 공기흐름 제어 등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LG전자가 2026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과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포함해 총 9개 제품이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 /LG전자

특히 엑스붐 미니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레드닷, IDEA에서 모두 수상한 데 이어 국내 우수디자인 상품에도 선정됐다.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의 패키지 디자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일체형 구조 설계와 친환경 펄프 소재 적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동, ESG 평가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

기후변화, ESG 투명성 제고 '중점'

대동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6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25일 대동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등급을 기록하며 전 부문에서 지난해 등급을 유지했다. 통합 등급은 2022년 D에서 2023년 C, 2024년 B+, 2025년 A로 3년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A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

올해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ESG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GS그룹** [㈜GS] ◇사장 승진 △이태형 재무팀장(CFO) 겸 PM팀장 ◇상무 신규선임 △허욱 재무팀 [GS에너지] ◇부사장 승진 △김기환 미래에너지실장 겸 GS차지비 대표이사 [GS파워] ◇전무 승진 △윤창열 안양사업본부장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 선임 △김진학 상무

◆ **삼성웰스토리** ◇부사장 승진 △구선모 ◇상무 승진 △김상완 △김진환 △이기종 △전봉석

◆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승진 △김태정 △신형원 ◇상무 승진 △조형민

◆ **유한양행** ◇임원 인사 △총괄 공동부대표 겸 R&D총괄(사장) 김열홍 △총괄 공동부대표 겸 생산본부장(전무) 강대식

테슬라라는 전기차 시장을 버릴까



김필수의 차 이야기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실시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FSD), 대형 원통형 배터리, 생산 자동화, 기가캐스팅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왔다. 특히 차량을 오래 사용할수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과 기능이 개선되는 방식은 테슬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혁신을 주도했던 테슬라가 최근 전기차 사업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모델S와 모델X 등 다양한 차종을 선보였지만 생산 중단을 결정했고, 사이버트럭 역시 생산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주력 판매 모델은 모델3와 모델Y 중심으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신차 출시 주기도 경쟁사보다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도 달라졌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과 품질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예전 같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현지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다. 과거 20~30%에 달했던 테슬라의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산 모델Y를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 시내 테슬라 스토어에 사이버트럭이 전시되어 있다. /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주목하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이다. 생산을 중단한 모델S와 모델X의 생산 공간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도 미래 사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기차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차종을 확대하기보다 모델3와 모델Y 등 핵심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인 로봇과 자율주행에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기차가 더 이상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AI 사업을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바뀌는 셈이다.

결국 테슬라의 다음 승부는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얼마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스페이스X와의 사업적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머스크가 구상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전기차 혁신으로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테슬라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할 시점이다.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은행의 디지털 혁신과 신뢰



기자 수첩 나유리 〈금융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수 천 만원의 예금을 옮길 수 있는 시대다. 은행 영업점 앞에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대규모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만큼 금융위기의 전개 속도도 빨라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25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을 연계한 첫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중첩돼 디지털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주목할 점은 사이버 공격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위기 시나리오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보보안 문제가 단순한 전산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은행권의 보안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은행이 해킹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하루 이상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모의해킹을 통해 발견한 보안 취약점 가운데 개선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자금을 옮기는 데는 불과 몇 초면 충분하지만, 정작 금융회사가 침해사고를 인지하는 데는 수십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은행들은 앞다퉈 AI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부터 AI 기반 자산관리, 업무 자동화까지 기술 경쟁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면 보안과 위기 대응 역량이 디지털 혁신의 속도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역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평가에서도 디지털 혁신 성과만큼이나 보안 투자와 사고 대응 역량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은행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위기 상황에서도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가 은행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마저 빨라졌다. 은행들이 디지털 혁신에 쏟는 열정 만큼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 (음 10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집 매매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60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72년생**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하세요. **84년생** 남의 일을 돕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노력의 대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61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73년생** 남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설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2년생** 건강을 주의하세요. **74년생** 공들인 노력은 끝내 이루겠습니다. **86년생** 중심을 잃지 마세요.

토끼 **51년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3년생** 지금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75년생** 성공이 결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추진하세요.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용 **52년생** 성공의 길은 단 한가지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64년생**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 보도록 하세요. **76년생** 업무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8년생** 이직운이 있으나 신중하세요.

뱀 **53년생** 지금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65년생** 주위의 신뢰를 얻으세요. **77년생** 모든 일에 근본은 정직입니다. **89년생**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해외여행을 떠나세요. **66년생** 위험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8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90년생** 까딱 잘못하면 도리어 그르치게 됩니다.

양 **55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태로워 집니다. **67년생**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들게됩니다. **79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91년생** 본업에 충실하세요.

원숭이 **56년생**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68년생** 상상이외의 지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80년생** 사소한 재물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92년생** 중심을 잡아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사람은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69년생** 혼란의 와중에서 겨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1년생** 내부를 견고히 하세요. **93년생** 본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주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개 **58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습니다. **70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82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94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습니다.

돼지 **59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71년생** 오래 묵힌 감정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갑니다. **83년생**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95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솟아납니다.



김상회의 四季

국화가 전하는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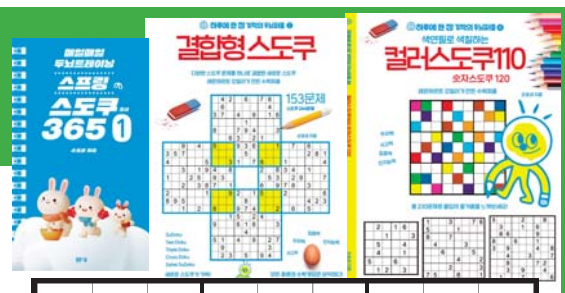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봄에 벚꽃이 있다면 가을에는 국화가 있다. 화려한 벚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면, 소박한 국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국화는 작고 촘촘한 꽃잎도,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다.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은데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다른 꽃에서 찾기 어려운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자신을 뽐내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의 모습으로 피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흔히 화려함을 떠올린다. 크고 눈에 띄거나, 남보다 뛰어나거나, 누구나 감탄할 만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반드시 화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입어 편안해진 옷, 매일 마주하는 가족의 얼굴,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특별하지 않아도 은근히 마음이 가는 것들이다.

국화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부담스럽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누구나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국화의 매력이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국화 같은 아름다움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많다. 젊을 때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진다.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고,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소중해진다. 국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가을이라는 계절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쌀쌀한 날씨에도 굳건한 가을 국화는 성숙함과 인내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피어나는 국화에서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아서 누구나 한 번쯤은 힘겨운 시간을 겪는데 그래도 소박한 꽃을 피워내길 희망하며 살아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5		3			1
			8			3	2	7
		9	4	3		1	8	
		5				9		
	1	4		5	9	7		
9	3	7			8			
6			9		4			8

		1		6			8	3
6			9					
			1		2		7	
8	9		2				6	
		7				3		
	6				3		5	9
	2		6		1			
					4			7
3	1			8		5		

8	3	2	4	7	9	1	5	6
4	1	5	8	2	6	9	3	7
9	7	6	5	1	3	4	8	2
3	6	7	9	5	2	8	1	4
2	4	9	7	8	1	6	5	3
5	8	1	6	3	4	2	9	7
7	2	9	1	4	5	3	6	8
1	9	8	3	6	7	5	4	2
6	5	4	2	9	8	7	3	1

6	2	5	9	8	7	4	1	3
7	9	1	4	2	3	6	8	5
8	3	4	1	5	6	9	2	7
2	5	8	3	7	4	1	6	9
1	4	2	7	9	6	5	3	8
5	7	6	2	4	1	8	9	3
9	3	8	6	1	5	7	4	2
6	9	2	4	3	8	7	5	1
4	8	7	5	6	9	3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도심복합사업 '보상 사각지대' 손본다

최수진 의원, 공공주택 개정안 발의
매입 시점 따라 보상 형평성 논란
제도 시행 전 매입한 집도 현물보상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택 매입 시점에 따라 보상 방식이 엇갈리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물보상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되기 전 주택을 매입한 주민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반면, 뒤늦게 매입한 주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내놓는 주민에게 현금 대신 새로 건설하는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시점과 관계없이 2021년 6월 29일을 우선공급기준일로 정하고 이후 매수자를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후보지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법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사업지의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했다.

또 후보지 선정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현물보상 대상자로부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허용했다.

문제는 지위승계 규정이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일 이후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주민들은 매입 당시 지위승계 특약 및 확인제도가 없었던 탓에 현금청산 대상으로 남게 됐다.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2021년 8월 4일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4년 5월 16일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년 9개월이 걸렸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 사업 추진이 구체화하기 전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복합지구로 지정된 2024년 12월 이후인 올해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내달부터 청소년도 '모두의카드' 사용 가능

교통비 20% 환급 혜택
내년 2월 특화 상품 3종 추가

앞으로 만 13~18세 청소년도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두의카드 이용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은 대중교통비의 20%를 돌려주는 정률형이나 기준금액을 넘겨 쓴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정액형 기준금액은 수도권 일반형 기준 6만2000원이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선불·체크카드다. 만 13~17세라면 농협·신한·우리·이즐·코레일·토스·티머니·하나·IBK기업·KB국민 등 10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다. 만 18세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은 뒤 모두의카드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가계 교통비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2월에는 카드 상품 3종이 추가된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한패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 KB국민카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을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성채리 기자 cr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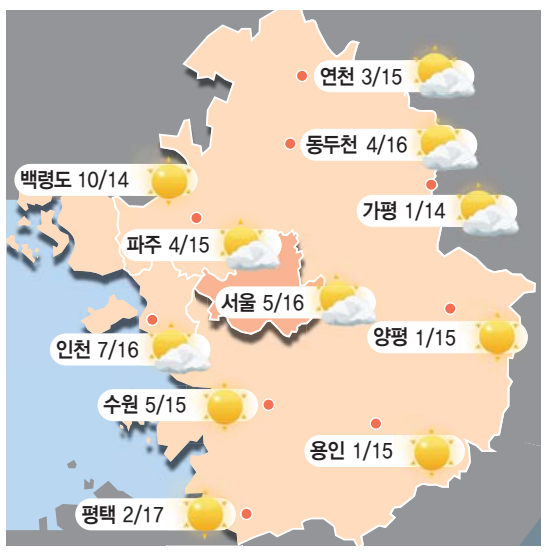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3 | 해짐 / 17:15

11월 26일(木)
음력 : 10월 18일

수도권 날씨
5 ~ 16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 38층 업무·전시 복합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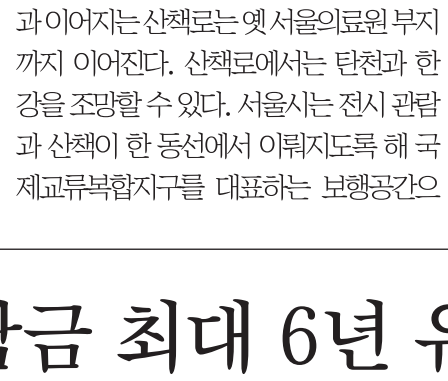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마이스 지원시설·문화공간 등
한강·탄천 조망, 공중 산책로 연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와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한강과 탄천을 바라볼 수 있는 공중 산책로로 연결된다. 옛 감정원 터에는 지상 38층 규모의 오피스·전시·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인근 한국무역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업무·전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대구로 이전한 한국감정원의 삼성동 옛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8층, 연면적 12만6000㎡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프라임 오피스와 마이스(MICE) 지원시설, 문화공간을 갖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시·컨벤션 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동 171-2 업무시설 건립사업' 안건은 지난 24일 열린 제2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축계획의 특징은 1606㎡ 규모의 특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 들어설 지상 38층 업무·문화 복합시설 투시도. /서울시

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를 하나로 연결한 '도시고원(Urban Plateau)'이다. 전시장과 이어지는 산책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까지 이어진다. 산책로에서는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시 관람과 산책이 한 동선에서 이뤄지도록 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대표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천을 마주하는 건물 저층부는 수변 거리와 맞닿은 전면을 개방형으로 설계했다. 실내형 공개공간과 계단형 도서공간인 '스텝라이브러리'도 마련한다. 탄천변을 걷던 시민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날씨에 관계없이 쉬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지 북측에는 동서 방향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한다. 이 통로는 코엑스와 탄천, 잠실종합운동장, 한강을 잇는 주요 보행축에 연결된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로 이어지는 공중 산책로와 함께 삼성동 일대 업무·전시시설과 탄천변을 오가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의 국제업무 및 MICE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한국무역센터 증축, GBC 복합시설 신축, 잠실 MICE 등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전시·문화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우건설, 분담금 최대 6년 유예 '승부수'

현장르포

목동 첫 '써밋' 8단지

착공 전 물가 상승분 500억 부담하고
담보인정비율 100% 수준까지 지원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8단지 내 806동 북측에 마련된 대우건설 홍보관. 영상이 끝나자 관계자가 천장을 가리키며 "이 홍보관 높이가 3m인데 새 아파트 천장은 이보다 조금 아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천장고는 2.7m로 목동 최고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10월 목동8단지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다음달 12일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는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인 상황에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그것도 단지 안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조건은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 한다"며 "예약은 이미 꽉 찼다"고 전했다.

목동8단지 재건축은 신정동 314번지 일대 최고 15층, 1352가구를 최고 49층, 1847가구(조합 원안 기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합 목표대로라면 내년 말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서울 양천구 목동8단지 재건축 홍보관에 마련된 '써밋 디아보 목동' 모형도. /안상미 기자

있다.

단지명은 '써밋 디아보(SUMMIT THE ARBOR) 목동'이다. 나무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아보'에 우아할 아(雅)와 성채 보(堡)를 조합했다. 외관은 덴마크 어반 에이전시, 구조 설계는 영국 아룹(ARUP), 조경은 슈퍼매스스튜디오가 맡았다.

사업조건은 이주부터 준공, 분담금까지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 맞췄다. 분담금은 입주 때 내거나 입주 후 최대 6년까지 미룰 수 있다. 기존 시공사 선정 단지와 비교하면 6·12단지는 최대 4년이고, 10·13단지는 유예 조건이 없다. 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분양수입금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만 받는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8단지에 유리한 조건이다. 착공 전 물가 상승분은 500억원(대략 20개월치)까지 대우건설이 부담한다. 3.3㎡당 공사비는 954만원으로 원안보다 11만원 낮췄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2개월이며, 책임준공도 확약했다.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에 대우건설이 연대보증하는 추가 이주비를 더해 LTV 100% 수준까지 지원한다. 감정평가액이 20억원이면 1주택자는 기본 6억원에 추가 14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이 생기면 아파트와 상가 모두 대우건설이 최초 일반분양가로 사들인다. 조합으로서는 '완판'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셈이다. 상가까지 사들이는 조건을 내건 곳은 목동에서 두 곳밖에 없다.

내부 설계도 특화했다. 가구당 평균 서비스 면적은 11.8평으로 목동 최대다. 원안보다 중대형 평형은 223가구, 맞통풍 구조는 289가구 늘렸다. 84C·D타입 548가구에는 기둥을 뺀 벽체를 모두 허물 수 있는 '플렉시블 플랜'을 적용해 주방 위치까지 옮길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가구마다 한 대씩 쓰고, 택배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둬 외부인 동선을 분리했다. 주차 대수는 가구당 2.2대다.

파격적인 조건의 배경은 목동 선점이다. 관계자는 "목동은 14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누가 선두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목동8단지 외에 11, 14단지 수주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메트로 한줄뉴스



▲"사우디 왕세자, 내달 G20 계기로 방미"…이란 전 후 첫 트럼프 대면 /사진 뉴시스

▲트럼프가 밀어준 젠슨황 복귀 …엔비디아 '백악관 눈치' 꼬리표 붙나

▲中샤먼항공, 보잉 여객기 50대 도입…2017년 이후 첫 대규모 주문

▲러, 국경 닫겠다는 나토 회원국 에스토니아에 '전쟁'까지 거론

▲美 국채금리 5% 넘자 빌딩 투자자들 지갑 닫았다…신규매물도 급감

▲국제유가, 호르무즈 선박 공격에도 하락…공급과잉 우려 부각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3호 2026년 11월 26일 목요일



편의점업계,
내수한계 넘는다
해외진출 가속화
L1

식품업계,
'아는 맛' 공략
파생상품 확대
L2



바삭한 치킨에 매콤양념·치즈소스 듬뿍
'맵느 매력' 인기몰이… 스테디셀러 등극

〈맵고 느끼한〉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맘스터치 '핫치즈' 시리즈

매콤한 양념을 입은 바삭한 치킨 위에 부드럽고 진한 치즈 소스가 듬뿍 올라간다. 매콤한 양념과 고소한 치즈가 어우러진 중독적인 맛은 이른바 '맵느(맵고 느끼한)'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 2024년 11월 SNS 입소문을 타고 뒤늦게 흥행에 불이 붙은 뒤, 맘스터치의 대표 치킨 라인업으로 자리매김한 '핫치즈' 시리즈 이야기다.

2022년 5월 '핫치즈싸이순살'로 출시된 핫치즈 시리즈는 초기 2년 반 동안 누적 판매량 80만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4년 11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맵느의 정석'이라는 평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었고, 지난해 5월에는 누적 판매량 700만개를 넘어섰다.

현재도 맘스터치 치킨 메뉴 가운데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팬층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 유입과 재구매가 이어지면서 단기 유행을 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맘스터치 핫치즈 시리즈. (왼쪽부터) 핫치즈빅싸이순살맥스, 핫치즈밤 빅싸이순살맥스

2022년 '핫치즈' 시리즈 첫선… SNS 타고 흥행
새로운 맛·비주얼 더한 후속제품 연구개발 이어져
신제품 '핫치즈밤' 3주 만에 누적 판매 30만개 돌파

흥행을 이끈 대표 메뉴는 100% 닭다리살을 사용한 '핫치즈 빅싸이순살'이다. 바삭하게 튀긴 치킨에 매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치즈 소스를 더해 차별화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치즈 풍미를 한층 강화한 후속 제품 '핫치즈밤'까지 흥행에 가세하면서 핫치즈 시리즈는 맘스터치의 대표 치킨 라인업으로 입지를 넓혔다.

◆ 치킨 헤리티지로 탄생한 '핫치즈' 치킨

맘스터치는 1997년 치킨 전문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싸이버거'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대표 치킨버거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이후 축적해 온 치킨 조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군을 넓혀왔다. 2021년에는 첫 순살치킨인 '싸이순살'을 출시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2024년 8월 '빅싸이순살'로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치킨 카테고리 강화에 나섰다.

빅싸이순살은 닭다리살 특유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한 제품이다.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적합한 크기를 구현했으며, 기존 싸이순살보다 조각당 중량을 두 배로 늘려 육즙과 쫄깃한 식감을 강화했다.

이같은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2024년 8월 출시된 메뉴가 '핫치즈빅싸이순살'이다. 매콤한 양념과 치즈 소스의 조합에 맘스터치 특유의 두툼한 닭다리살 식감을 더했다. 맛과 품질뿐 아니라 레귤러 사이즈 기준 1만원대 초중반의 가격도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주요 치킨 전문 브랜드와 차별화된 가성비와 만족도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핫치즈 치킨의 인기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SNS 콘텐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2024년 11월 유명 틱톡커가 핫치즈빅싸이순살을 소개한 먹방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출시 이후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제품이 SNS를 통해 재조명되며 역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2025년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배 이상 늘었고, 브랜드의 핵심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팬덤도 형성됐다.

◆ '핫치즈밤'으로 진화한 히트 라인업

맘스터치는 기존 핫치즈 시리즈의 인기를 후속 제품으로 이어가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올해 5월 선보인 '핫치즈밤'은 핫치즈 시리즈 누적 판매량 700만개 돌파를 기념해 출시한 신제품이다. 제품혁신센터가 수백 가지 치즈와 소스 조합을 시험한 끝에 개발했으며, 기존 핫치즈 위에 크리미한 그뤼에르 치즈소스와 쫄깃하고 고소한 슈레드 치즈를 더한 스페셜 소스를 얹었다. 풍성한 치즈 비주얼과 한층 진해진 풍미를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출시 성과도 두드러졌다. 핫치즈밤은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개를 돌파하며 맘스터치 역대 치킨 신메뉴 가운데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치킨 카테고리 매출은 직전 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과 객수도 각각 14%, 11% 늘었다. 기존 핫치즈 시리즈의 인기에 새로운 맛과 비주얼을 더한 전략이 후속 제품의 흥행으로 이어진 셈이다.

◆ 버거·치킨·피자 결합 'QSR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핫치즈 시리즈의 인기는 맘스터치의 치킨 사업 확대와도 연결된다. 맘스터치는 기존 치킨버거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치킨과 비프버거, 피자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버거·치킨·피자를 한 매장에서 즐길 수 있는 'QSR(Quick Service Restaurant)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매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치킨은 점심시간 수요가 높은 버거와 달리 저녁 식사와 야식 등 다양한 시간대에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장 운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버거보다 객단가가 높아 가맹점의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하다.



맘스터치 매장 전경. /맘스터치

'핫치즈' 시리즈 인기, 맘스터치 사업 확대에도 영향
저녁·야식 등 다양한 시간대 가맹점 추가 매출 확보
"소비자 취향·수요에 맞춰 치킨 카테고리 경쟁력 강화"

맘스터치는 핫치즈 시리즈를 비롯해 차별화된 치킨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치킨 자체를 목적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층을 확대해 왔다. 실제 전체 매출에서 치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0.5%에서 2024년 18%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20% 초반까지 확대됐다. 치킨이 가맹점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카테고리로 자리 잡은 것이다.

맘스터치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대응하면서 치킨 카테고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일구회, 잠실구장 고별전 용품 경매… 마지막 아웃카운트 공 350만원 낙찰
▲ 김하성, MLB 생존… 디트로이트와 1년 최대 80억 계약 합의 /사진 뉴시스

▲ 'EPL 1위' 아스널, '분데스 1위' 도르트문트와 UCL서 1-1 무승부
▲ EBS, 생성형 AI 기반 애니메이션 5편 내달부터 순차 방영

▲ 코르티스, 日 GQ '브레이크스루 글로벌 아티스트'…K-팝 그룹 최단기
▲ '구글 출신' 현경렬, 장동민 꺾고 '데블스 플랜 3' 우승…상금 2억

스마일을 켭니다!

미소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LG의 스마일 프로젝트
올가을에 진행한 대국민 미소 사진 공모전 당선작을
광화문 전광판에 가득 띄웁니다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매 시 10분에
광화문을 가득 채우는
기분 좋은 미소를 만나보세요

전광판 운영시간 06시 ~ 24시

미래,
같이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LG